

M45-30 / 2003. 2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30호 (2003년 2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미국, 21세기 농업정책의 방향과 딜레마 3
2. 미국, 유기농산물시장 대폭 확대 11
3. 미국, 양돈경영 규모화 진전 13
4. 중국, 2003년도 농산물 관세할당량 결정 15
5. 중국, GM 작물승인에 관한 규제강화 17
6. 중국, 채소수출기업이 농약검사 강화 19
7. 브라질, 2002/03년 대두 생산과 수출 확대 23
8. 칠레, 아시아태평양 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26
9. WTO, 캐나다의 낙농보조금에 위반 판결 28

II. 농산물무역 동향

- 중국, 2002년 농산물무역 동향과 2003년 전망 33

III. 국제기구 논의동향

1.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47
2. EU, 농업모델리티 1차안 거부 반응 54
3. WTO 회원국, 농업모델리티 협상연장 준비 59

IV.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2) 65

V. 통계자료 75



농업 농정 동향

미국, 21세기 농업정책의 방향과 딜레마

미국, 유기농산물시장 대폭 확대

미국, 양돈경영 규모화 진전

중국, 2003년도 농산물 관세할당량 결정

중국, GM 작물승인에 관한 규제강화

중국, 채소수출기업이 농약검사 강화

브라질, 2002/03년 대두 생산과 수출 확대

칠레, 아시아태평양 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WTO, 캐나다의 낙농보조금에 위반 판결

미국, 21세기 농업정책의 방향과 딜레마

매년 2월이면 미국 농업부(USDA)가 주최하는 농업전망대회(Agricultural Outlook Forum)가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틀간에 걸친 2003년도 대회에서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에서 미국 국내농업정책, 농업관련정책, 그리고 세계의 농업사정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그밖에도 WTO 농업협상에서의 각국 입장, EU 확대에 따른 농업사정 변화 등 중요 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도 있었다.

이번 전망대회는 주제만 보아도 농촌개발, 식생활, 식품안전성, 생명공학, 환경보전, 해외경쟁, 그리고 농업프로그램과 그 실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흥미로운 것은 식량안보나 농촌사회보전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당당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출국간 경쟁분야에서는 당연히 현실적인 분석, 즉 미국과 케언즈 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각국의 농업보호를 철폐하게 되면, 미국이라 해도 많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농업부의 견해로 제시되어 있다.

DDA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대외용 미국 정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WTO 농업협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국내에서 하는 행동이나 앞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등을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는 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전망대회를 통해서 미국 농업정책의 딜레마에 주목해 본다.

1. 21세기 미국농업의 방향성

이번 전망의 주제는 ‘21세기의 경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의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1.1.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첨단기술 활용

21세기 경쟁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유전자조작(GM) 종자, 최신 농업기계, 컴퓨터 활용에 대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 농업부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갈 것이다.

또한 옥수수를 에탄올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정책과 함께 향후에도 성장이 기대된다.

환경정책으로서 습지대 유지와 축진프로그램에 협조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득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부와 협력하여 농업과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산정방식을 확립하여, 이것을 이산화탄소배출업자와 교환하는 것을 통한 이익 창출에도 공헌하고자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대기정화 프로그램도 생산자와 환경 양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을 구사하여 비식료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작물과 축산물도 생산자의 이익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러한 과학기술이 안전성 규제를 벗어나 독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실제로 생명공학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의약품과 공산품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1.2. 식품안전성의 개선

식품안전성에 대해서는 광우병(BSE) 발생을 계기로 쇠고기 수입량(미국으로부터의 수출량 포함)이 감소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식량은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것이 소비자에게 선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식량에 관한 바이오 테러의 가능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하게 확립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과제로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생산자 위기관리의 향상

21세기 미국 농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시장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위기관리의 확충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물보험의 보급과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1.4. 무역과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확대

21세기 미국 농업의 성공요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것이 미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방과 세계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고 있는 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최근 10년간 NAFTA내의 무역량은 76%나 성장하였으나 그 이외 지역과의 무역량은 12% 증가에 그쳤다는 실태가 소개되었다. NAFTA를 모체로 하여 미주자유무역지역(FTAA)로 발전시키는 것이 다음 전략이라고 한다.

둘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WTO 농업협상이다. “금년은 포괄적인 무역협상의 의제를 전진시키는데 특히 중요한 해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관세나 보호 감축을 통해 무역개혁을 하는 세부원칙(Modality) 실현을 위

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과제가 중요한 것은 미국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개도국을 협정의 파트너로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은 단순히 협정품목의 무역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역에 따른 진짜 이익, 즉 경제발전과 소비자 소득향상을 촉진하여, 그에 따른 식료,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WTO와 양자간 협상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뿐 아니라,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과제 실현을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기 4개 항목을 통해서는 미국 농업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 농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대조하여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의도하는 바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2. 21세기 미국 농업의 경쟁력

전망대회에서 미국 농업부는 2012년까지 미국 및 세계 각국의 농업생산 및 무역에 관한 장기예측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이 장기예측에서는 2002년 농업법의 틀이 2012년까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예측에 의하면 세계 곡물생산은 향후 순조롭게 증가세를 이어나가 2012년에는 현재보다 20~30% 정도 증가한다. 세계 곡물수입량, 수출량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의 증가요인은 주로 개도국의 수요증가에 있다. 즉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식생활 향상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 대두 수출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데 대해, 미국

에서는 거의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농산물 전체의 수출전망에 대해서는 곡물 등은 거의 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 데 대해, 가공곡물과 곡물유지, 축산물, 과일, 채소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은 대폭적인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 현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곡물에 대해서는 향후 경쟁력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고부가가치 농업생산물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미국 농정에서 4대 시책의 의미

3.1.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활용 확대

미국내의 농지확대와 수송인프라장비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조건만을 본다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호주 등 농업생산 대국에 비해 미국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미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은 국내보조금 증대를 제외한다면 생명공학 등의 기술을 구사하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내에서의 에탄올이라는 새로운 독점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무리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농업생산 대국에 대한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환경보호 정책과의 공생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소득 향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한다. 또 에너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소득향상방안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편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우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를 강구하고 있다.

3.2. 식품안전성 개선

미국 농업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실제로 구매 패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GM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생명공학 없이 향후 미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엿보인다.

3.3. 생산자의 위기관리 향상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소득보상에 대해서는 향후 작물보험의 확충이 관건이라고 한다.

3.4. 무역과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확대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감축과 시장접근기회 확대를 추진해도 미국 농업에 대한 이득은 적다. 그보다 개도국의 경제를 지원하여 전체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미국 농업에 대한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다.

4. WTO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WTO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보호 철폐 또는 대폭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막대한 보호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만약 보호 철폐나 대폭적인 감축이 실현되어도 지금의 미국 농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곡물에 대해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경쟁력 높은 나라에 대항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대안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서도 EU에서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이 소비자의 불안이라는 지뢰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국내보호의 철폐나 대폭 감축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향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상징하는 논쟁이 이번 전망대회에서 베네만 농업부 장관과 브라질의 컨설턴트간에 전개되었다.

“베네만 장관, 나는 브라질 사람으로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실현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2001년 미국의 농업보조액은 950억 달러였지만, 브라질에서는 5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베네만 장관의 답변은 “분명히 자유무역협정에서 국내보조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미국은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 즉 WT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국내보조를 줄이면 EU나 일본 등의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 생산자는 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 때문에 WTO 무역협상에서 세계 전체의 보호감축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상은 추진하기는 하지만, WTO가 진전되지 않는 한 국내보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점에 관해서는 비공식적이긴 하나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미국의 한 농업전문가는 미국의 대두경쟁력에 대해서 “미국은 10%의 생산자가 75%의 대두를 생산하고 있고 잠재적으로는 경쟁력은 있다. 그러나 남은 90%의 생산자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의회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WTO 농업협상에서 EU와 일본 등에게 어떠한 양보라도 하게 된다면 의회는 그것을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서 어떠한 양보를 하더라도 의회는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협상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받아내야만 비로소 의회는 패키지로 WTO 협상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어디까지나 한 명의 농업전문가의 사견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딜레마를 안고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점이다.

자료: <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미국, 유기농산물시장 대폭 확대

미국에서 유기식품 소매판매액은 1990년대에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확대되어 2000년은 7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기식품의 가장 중요한 판매창구는 자연식품점에서 일반 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수량 확대, 품질 향상, 상품 다양화, 그리고 연방유기식품기준 시행 등을 배경으로 미국의 유기식품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유기식품 소매판매액은 1990년 당시 10억 달러였던 것이 1996년 33억 달러, 1999년 65억 달러로 상승하고, 2000년에는 7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연평균 20% 이상의 대폭적인 증가율이다.

유기식품이라고 하면 ‘특수한 소비자층을 노린 특수한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미 과거의 일화가 되고 있다. 2000년도 유기식품 소매판매액을 추정한 Packaged Facts 사에 의하면, 동년의 전국 유기식품 총판매액 78억 달러의 49%는 일반 마켓, 48%가 자연식품점, 나머지 수 %가 농민시장 등의 직거래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일반 마켓에서 유기식품 판매액이 기존의 가장 중요한 판로였던 자연식품점의 판매액을 상회한 것은 동사에 의한 조사가 개시된 이래 최초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 유기식품판매액 내역이 일반 마켓 7%, 자연식품점 68%라는 비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0년대에 일반 마켓에서 유기식품 판매액이 현저하게 확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반 마켓의 73%에서 유기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주요한 유기식품은 신선 과일과 채소이다. 식품업계의 'Nutrition Business Journal'에 의하면, 청과물에 이어 빈번하게 판매되는 유기식품은 과즙, 두유를 포함한 비우유 음료를 비롯하여 빵 및 곡류, 각종 냉동, 건조, 통조림 가공식품, 낙농제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선 청과물은 50년전에 미국시장에 도입된 최초의 유기식품이며, 지금은 유기시장에서 주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외 다양한 식품이 도입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에 미국시장으로 도입된 새로운 유기식품은 각종 디저트류를 주체로 하는 800품목에 달하고 있다고 업계 소식통은 보고있다.

미국에서 유기식품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의 환경보전과 건강증진 의식의 향상 등으로 초래된 부분이 크다. 이러한 소비자 동향이 유기식품의 수요 확대로 이어져 수요증가가 생산량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품질 향상, 품목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방 유기식품기준이 향후 시장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資料: www.maff.go.jp/kaigai/2003/20030105sanfrancisco05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미국, 양돈경영 규모화 진전

미국 농업부(USDA)가 발행하는 계간지 'Hogs and pigs'지 초신호에 의하면 대규모 양돈경영의 돼지 사육두수가 최초로 미국 전체의 75%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일부 관측당국은 업계 전체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소규모 생산자가 폐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75%를 대규모 양돈경영이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의 점유율이 이번에 최초로 7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며, 양돈업계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도 대규모 농장(사육두수 2,000두 이상)의 양돈업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확대하였다. 2001년에 74%이었던 대규모 농장의 사육두수는 2002년에는 7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농장이 전국 양돈농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사육두수 5,000두 이상의 대규모 농장의 증가가 현저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농장은 약 2,260개소이며, 사육두수 점유율은 2001년보다도 1% 상승하여 53%가 되었다. 한편, 100~1,000두를 사육하는 중규모 양돈경영의 2002년 점유율은 12%로서 2001년보다 1% 감소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미국의 양돈농가는 73,350개소, 총사육두수는 5,890만두이다. 한편 2001년에는 80,880개소의 농장에 사육두수는 5,980만두였다.

일부업계 관측당국은 최근 수년간 소규모 양돈업자가 폐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어 소규모 생산자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돈업계나 사료업계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규제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부시 정부는 대규모 축산장 및 양계장에 대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분뇨의 방출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2,500두 이상의 양돈농가는 수질오염허가 취득과 상세한 폐기물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양돈농가의 비용이 증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생산자가 퇴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3/20030101usa10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중국, 2003년도 농산물 관세할당량 결정

중국은 2003년도 주요 농산물 관세할당량을 결정, 관련기업에 배포하였다. 주요 품목은 소맥, 옥수수, 장립미, 단립미, 대두유, 팜유, 유지종자, 설탕, 면화 등이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협작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속보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주요 농산물의 수입관세할당량을 결정하여 관련기업에 배포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무역 관세할당량은 소맥 865만 2,000톤, 옥수수 632만 5,000톤, 장립미 225만 2,500톤, 단립미 152만 9,050톤, 대두유 261만 8,000톤, 팜유 250만톤, 유지종자 91만 8,600톤, 설탕 115만 2,200톤, 면화 35만 6,250톤으로 밝혀졌다.

표 1 중국의 2003년도 관세할당량

단위: 톤

	일반무역	가공무역
소맥	8,652,000	400,000
옥수수	6,325,000	200,000
장립미	2,252,500	75,000
단립미	1,529,050	75,000
대두유	2,618,000	200,000
팜유	2,500,000	100,000
유지종자	918,600	100,000
설탕	1,152,200	700,000
면화	356,250	500,000

또, 가공무역 할당량은 소맥 40만톤, 옥수수 20만톤, 장립미 7만 5,000톤, 단립미 7만 5,000톤, 대두유 20만톤, 팜유 10만톤, 유지종자 10만톤, 설탕 70만톤, 면화 50만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 농업의 생산과 유통사정이나 WTO 가입후 중국의 대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資料 : 「經濟日報」 2003年 1月 3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중국, GM 작물승인에 관한 규제강화

중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를 지원하여 왔는데 최근 제정된 새로운 규칙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20년간에 걸쳐 중국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우려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전자변형작물의 승인과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작물 생산국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면화생산국이지만, 2002년도 해충 내성면화의 식부면적은 총식부면적의 50%를 넘는 220만ha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경의 중국농업정책센터(Center for Chinese Agricultural Policy)의 대표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 쌀(GM 쌀) 생산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자에 의하면 중국의 과학자는 약 60 종류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에 정부 자금원조를 받고 있으며,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은 기타 유전자변형 작물의 세계 주요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로는 소비자가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안고 있어 이러한 작물을 구입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승인 과정에 시간을 들여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상품화를 승인한 유전자변형 작물은 면화, 토마토, 피망, 페츄니아 등 몇가지 품목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3~4년 동안에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인 몬산트사는 자사의 해충내성 옥수수의 승인을 중국 당국에 신청하였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이미 안전성 평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 쌀의 상품화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품화를 규제하는 활동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가 촉진되고 있지만, 일단 유전자변형 작물이 자연작물 중으로 도입되면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업계관측통에 의하면 현재 국내 농가는 수량 증가와 질병에 대한 내성을 고려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연작물의 공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기업인 제네스캔(Genescan)에 기술적인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3/20030101china10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중국, 채소수출기업이 농약검사 강화

지난해 중국은 잔류농약문제로 채소의 대일, 대EU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신뢰회복을 위하여 중국 정부도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최근 채소 수출기업들도 농약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채소 수입은 200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5%나 감소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로 수입을 제한하였던 2001년 조차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을 보면 잔류농약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통한 수출확대에 노력하는 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1. 유기채소 수출개척

중국 산둥성 泰安市에 위치한 泰安泰山亞細亞食品有限公司(이하 ‘아세아식품’이라 한다)는 유기채소를 생산, 전량 수출을 하고 있다. 아세아식품이 유기농산물 생산을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3년간에 걸쳐 유기농장으로 전환하여, 97년에는 중국 유기농업인증단체인 OFDC(유기농업발전센터)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1998년에는 미국 OCIA(국제유기작물개량협회), 2000년에는 일본 JONA(Japan Organic Natural Foods Association)에서도 유기인증 취득,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2. 생산기지 단지화

아세아식품은 개별 농민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촌 단위로 조직된 합작사와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지역의 농가 1호당 평균 규모는 1무(약 200평)에 불과하지만, 합작사를 통해서 농지의 단지화를 도모하여 최저 200무 규모의 단지화된 농지를 하나의 '생산기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산기지별로 등급을 결정하는 담당자를 두어 농민에 대한 지도, 농작물 관리와 매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현재 11개 생산기지가 유기인증을 받고 있으며, 총면적은 4,200무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7개 생산기지가 유기재배로 전환기간 중에 있으며, 면적은 1,400무에 이른다. 또, 생산기지에는 농지의 청부경작권을 1호에 집중하여, 기지내의 모든 농지를 통일적으로 경작하고 있다.

3. 생산물의 전량 수출

아세아식품은 3개소에 유기냉동채소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아스파라거스, 풋콩, 고구마, 참마, 시금치, 우엉, 당근, 강낭콩, 연근, 무, 마늘 등 다양한 품목의 채소를 취급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8,000톤 정도이며, 고구마(3,000톤), 시금치(2,000톤), 브로콜리(1,500톤) 등이 주요 품목이다. 생산한 농산물은 전량 수출용이며,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또 현재 소량이기는 하지만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단지, 2002년은 잔류농약문제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유일하

게 증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용 강낭콩, 브로콜리, 풋콩, 스낵 완두 등이다. 대일 수출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러시아, EU 등으로 수출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4. 잔류농약방지조치 철저화

유기채소를 취급하고 있는 아세아식품에서는 유기채소에 농약이 혼입되지 않도록 공장단계에서의 검사강화에 그치지 않고, 생산단계까지 소급하는 철저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생산기지에서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채소의 재배에 참가하지 않은 주변농가를 포함하여, 생산기지가 있는 촌 단위에서 일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것이 특색이다. 현재 강구하고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생산기지와 그 주변의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일반 농지와 사이에 6미터 정도의 격리대를 두고, 포장의 분리를 철저히 한다.

(2) 유기농장에서 식부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채소를 주변의 일반 농지에 식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유기농장의 주변에 있는 일반 농지에 대해서도 농약의 사용상황에 관한 기록을 하는 동시에, 유기농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농지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순시, 관리한다.

(4) 일반 농지에서 농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촌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농약의 사용 시에는 대형기계로 살포하지 않고, 또 풍력이 3 이상일 때는 살포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여러 항목에 걸쳐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농약사용에 관해서는 분무기의 사용, 기구 세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 생산기지에서는 소재하고 있는 촌 위원회의 전면적인 지원을 얻고 있으며,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촌 위원회를 통해서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세아식품은 이상과 같은 개선조치가 궤도를 타게되면 농약이 혼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수출 확대와 다변화를 노리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2/20021219china59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브라질, 2002/03년 대두 생산과 수출 확대

브라질은 2002/03 작물년도(7~6월)의 대두 생산이 전년대비 13.6% 증가한 4,760만톤, 또 1993/04 상업년도(2~1월)의 대두 수출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1,940만톤으로 각각 과거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대두 생산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는 2002/03 작물년도의 대두 식부면적은 전년도의 1,632만ha보다 9.8% 증가한 1,792만ha, 생산량은 전년도의 4,191만톤을 13.6% 상회한 4,76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서부가 전체의 46.7%를 차지하는 2,224만톤, 남부가 1,845만톤(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8%), 남동부가 372만톤(동 7.8%), 북동부가 275만톤(동 5.8%), 그리고 북부가 44만톤(동 0.9%)이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은 1982/83년의 1,453만톤에서 1992/93년에는 2,304만톤으로 늘어났으며, 게다가 2002/03 작물년도는 4,760만톤으로 과거 20년간 약 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식부면적이 1982/83 작물년도 841만ha에서 2002/03 작물년도는 1,792만ha로 배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식부면적은 이 기간 중에 165만ha에서 781만ha로 373.3%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314만톤에서 2,234만톤으로 증가한 것이 브라질의 대두생산에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큰 요인이다.

브라질 농목연구공사(農牧研究公社)의 한 연구원에 의하면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대두 식부면적의 외연적 확대에 한계가 있지만, 중서부지역에는 값싸고 광대한 토지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 1ha당 평균수량은 2,848kg으로 미국 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브라질 대두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0년후에 브라질의 대두 생산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2/03 작물년도 미국의 대두생산은 7,32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3,250만톤)를 합치면 8,010만톤으로서 남미의 대두생산이 최초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대두 수급

CONAB의 대두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3/04 상업년도의 기수재고(2003년 2월 1일 현재)는 185만톤, 여기에 2002/03 작물년도의 생산량 4,760만톤과 수입량 35만톤을 합치면 공급가능량은 4,980만톤이다. 이 공급가능량에서 국내용 2,880만톤과 수출량 1,940만톤을 뺀 기말재고는 160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식물유공업협회(ABIOVE)가 예측하는 대두 수급은 기수재고가 44만톤, 생산량이 4,830만톤, 수입량이 60만톤, 종자용과 손실량이 190만톤, 착유용이 2,740만톤, 수출량이 1,950만톤, 그리고 기말재고가 54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상품유통서비스세 폐지

브라질은 그동안 수출농산물에 부과하던 상품유통서비스세(州稅)를

1997년에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1997/98 년도 대두 수출은 전년의 365만 톤에서 834만톤으로 배증하였으며, 이 후도 대두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3년 1월 1일에 좌익정당인 노동당의 루라 명예총재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 정권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농산물에 대한 상품유통서비스세를 다시 부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두생산자, 착유공업업자, 수출업자 등은 상품유통서비스세나 수출세가 부과되면 대두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3/20030105brazil10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칠레, 아시아태평양 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2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칠레의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은 뉴질랜드·싱가포르와 3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칠레 정부가 3자간 FTA 협상에 착수한 주요 이유로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성장률이 세계의 다른 지역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칠레는 3,000마일을 넘는 장대한 해안선이 태평양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무역확대는 불가결해 지고 있다. 현재 칠레의 수출총액의 25% 이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의 무역확대 기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칠레 국내 생산자의 대다수는 뉴질랜드나 싱가포르간 무역확대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칠레의 낙농가와 임업생산자는 FTA 체결로 경쟁력이 높은 뉴질랜드 상품이 칠레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 당국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비교적 소국이지만 무역과 해외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아시아 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와 비해 상품무역의 확대기회는 비교적 적지만, 기술적인 협상이나 무역·투자부문의 협력사업에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칠레 정부는 주장하고 있

다. 이와 비교해서 중국과의 FTA 협정처럼 칠레의 거의 모든 무역부문에 대단한 혜택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국과의 협정 체결은 장기간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있어서 칠레와의 FTA는 남미를 향한 투자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칠레에 있어서 이번 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칠레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칠레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資料 : <http://www.maff.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WTO, 캐나다의 낙농보조금에 위반 판결

캐나다는 낙농보조금을 둘러싸고 뉴질랜드·미국 등과 5년 가까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 최근 WTO가 캐나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가 자국의 낙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뉴질랜드와 미국이 보조금은 위법이며, 이에 의해 양국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제기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유제품수출프로그램과 국내공급관리제도를 통해 낙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우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시장평균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낙농가는 생산할당량에 따르는 경우, 생산한 우유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이 보증된다.

그래서 캐나다의 낙농가는 유제품을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출하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 때문에 뉴질랜드와 미국의 낙농업계는 매년 판매금액으로 3,500만 US달러 가까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논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WTO는 최종적으로 캐나다의 낙농보조금은 실제로 규칙위반이며, 캐나다의 낙농가는 뉴질랜드나 미국의 낙농가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캐나다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WTO 상급위원회는 개선내용도 여전히 WTO 규정에 위반한다는 결론을 냈다.

WTO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출량의 상한을 버터 3,500톤, 치즈 9,000톤, 탈지분유 4만 5,000톤, 기타 유제품 3만톤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낙농가에 지불한 금액은 합계 약 2억 6,000만 US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WTO가 허용하는 수준을 1억 5,000만 US달러 이상이나 상회하고 있다.

WTO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캐나다 낙농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지자는 이 프로그램은 유제품가격의 하락을 방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반대론자는 소비자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견해는 양쪽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캐나다는 WTO 판결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낙농가는 변화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낙농생산자연합(Dairy Farmers of Canada)은 캐나다는 대규모 유제품 수출국은 아니기 때문에, WTO 판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제품 수출량의 약 5%에 불과하다고 한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3/20030101canada10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2002년 농산물무역 동향과 2003년 전망

중국, 2002년 농산물무역 동향과 2003년 전망

중국이 2001년 12월 WTO 가입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옥수수, 밀 등 경쟁력이 약한 토지집약형 농산물은 수입이 증가하고,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한 지 1년의 상황에서 볼 때, 토지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집약형 농산물수출은 수입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부딪혀 오히려 토지집약형 농산물의 수출 증가율보다 낮았다. 또한, 당초 농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수지가 크게 늘어나 WTO 가입의 충격은 표출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 등에서 중국 농업전문가들이 중국의 WTO 가입 1년의 농산물무역 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1. 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

2002년 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은 수출은 대폭 증가, 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농산물무역액은 305.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하였다. 특히, 농산물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181.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2.9%나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은 124.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하는데 그쳐, 농산물 무역수지는 57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억불이나 증가해 증가폭은 35%에 달하였다.

중국의 농산물무역액은 국가전체 무역액의 4.93%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0.55%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중 농산물수출액은 국가전체 수출액의 5.57%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0.4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농산물수입액은 국가전체 수입액의 4.22%로 전년에 비해 0.65% 포인트 하락하였다. 농산물무역수지는 국가전체 무역수지의 18.8%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0.01% 포인트 상승하였다.

2. 농산물무역의 특징

2.1. 2002년 하반기에 농산물수출이 대폭 증가

2002년 중국의 농산물수출은 비록 각종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신속한 축산물과 수산물의 무역분쟁 해결로 EU로 하여금 점차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여 중국 농산물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2002년 7~12월 중국 농산물 월별수출액은 전년동기와 비교해볼 때 평균 증가폭이 19%에 달해 2002년 농산물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12.9%나 증가하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농산물수입은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 그런 빠른 증가는 없었다. 5~9월 농산물수입액 누계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표 1 중국의 농수산물무역의 현황과 비중, 2002년

단위: 억달러

	금액	전년대비		전체 무역 대비 비중(%)
		증감액	증감률(%)	
수출입	305.8	26.8	9.6	4.93
수출	181.4	20.8	12.9	5.57
수입	124.4	6.0	5.0	4.22
무역수지	57.0	14.7	35.0	18.8

표 2 중국 농산물무역의 월별 현황, 2002년

단위: 억달러, %

월별	월별 수출입액				월별 수출입 누계			
	수출액	전년대비	수입액	전년대비	수출액	전년대비	수입액	전년대비
1월	13.1	21.1	8.5	33.9	13.1	21.1	8.5	33.9
2월	11.6	-0.8	6.2	-16.1	24.7	9.3	14.7	6.8
3월	13.5	-2.7	9.9	0.5	38.2	4.7	24.6	4.2
4월	15.5	10.7	10.4	-8.5	53.7	6.9	35.0	0.1
5월	13.0	2.4	7.5	-26.6	66.7	6.0	42.5	-5.9
6월	13.9	9.8	8.2	-19.7	80.6	6.6	50.7	-8.5
7월	15.2	17.3	12.1	13.4	95.8	8.2	62.8	-4.9
8월	15.3	27.6	12.1	17.4	111.1	10.5	74.9	-1.9
9월	15.1	18.9	12.5	10.7	126.2	11.5	87.4	-0.4
10월	16.0	22.5	10.7	13.7	142.2	12.6	98.1	1.0
11월	18.7	16.7	13.3	33.3	160.9	13.1	111.4	4.0
12월	20.5	11.8	13.0	15.8	181.4	12.9	124.4	5.1

GMO 안전관리제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 7~10월 월별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14% 증가하였으며 그중 11월에는 33%에 달하였다.

2.2. 토지집약형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1) 식량작물 수출은 대폭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2002년 중국의 식량작물 수출은 1,484만톤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285만톤으로 전년대비 17%가 감소하여 식량 순수출은 1,199만톤으로 전년대비 666만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옥수수과 밀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옥수수 수출은 1,168만톤으로 전년대비 567만톤 증가하였고, 밀은 98만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6만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옥수수, 쌀, 밀과 보리의 수입 감소이다. 옥수수는 0.8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3.1만톤이 감소, 쌀은 23.8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5.5만톤이 감소, 밀은 63만톤을 수입하

여 전년대비 11만톤이 감소, 보리는 191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46만톤이 감소하였다.

(2) 유지작물 수입이 대폭 감소, 유료·면화·당원료의 수출 증가

2002년 중국의 유지작물(주로 대두와 유채) 수입은 1,194만톤으로 전년 대비 373만톤 감소하였고, 수출은 121만톤으로 전년 대비 13만톤이 증가하였다. 그중 대두 수입은 1,132만톤으로 전년 대비 263만톤 감소하였고, 수출은 31만톤으로 전년 대비 4.3만톤 증가하였다.

유채수입은 61.8만톤으로 전년 대비 111만톤 감소하였다. 면화수입은 16.5만톤으로 전년 대비 9.5만톤 증가하였고, 수출은 15.9만톤으로 전년 대비 9.9만톤이 증가하였다. 식용 당원료 수입은 118.3만톤으로 전년 대비 1.6만톤 감소하였고 수출은 32.6만톤으로 전년 대비 13만톤이 증가하였다.

표 3 중국 식량작물무역 현황, 2002년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수입량	전년대비		순수출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쌀	198.3	12	6.4	23.8	-5.5	-19	175
옥수수	1,168	567	94	0.8	-3.1	-79	1,167
밀	98	26	36	63	11	21	35
식량작물계	1,484	607	69	285	59	17	1,199

표 4 중국 유료작물·면화·식용당의 무역 현황, 2002년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대 두	31	4.3	16.1	1,132	-263	-18.9
유 채	-	-	-	61.8	-111	-64.2
면 화	15.9	9.9	165.0	16.5	9.5	135.7
식용당원료	32.6	13	66.3	118.3	-1.6	-1.3

표 5 중국 채소 및 과일의 무역 현황, 2002년

단위: 만톤, 억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량	증감(%)	액	증감(%)	량	증감(%)	액	증감(%)
채 소	466	18	26.3	13	9.1	6	0.7	11.5
과 일	199	35	9.8	23.8	95	9	3.8	10.7

2.3. 축산물 이외의 노동집약형 농산물 수출은 모두 증가

(1) 채소·과일 수출의 큰 폭 증가

2002년 채소수출 물량은 466만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수입 물량은 9.1만톤으로 전년대비 6% 하락하였고, 수입액은 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 하락하였다. 과일수출 물량은 199만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9.8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수입 물량은 95만톤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3.8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다.

(2) 축산물은 수출감소 수입증가, 수산물은 수출입 모두 증가

EU(유럽연합)의 전면적인 중국의 동물원료식품 수입금지 영향으로 2002년 중국 축산물수출은 28.3억 달러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고, 수입은 21.8억 달러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다.

2002년 중국의 수산물수출은 비록 클로로마이세틴(chloromycetin) 사건으로 인해 EU의 수입제한을 받아 대EU 수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수산물 수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수산물 수출물량은 208.5만톤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46.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또 수입물량은 249만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2.7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2.4. 중국의 농산물무역구조 변화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로의 수출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2년 중국 농산물수출의 청신호를 나타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은 중국농산물의 제2수출시장이나 EU의 중국 동물원료로 만든 식품 수입금지 영향을 받아 2002년 유럽에 23.7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0.1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표 6 2002년 축산물 및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순수출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축 산 물	28.3	-3.7	21.8	7.8	6.5
수 산 물	46.9	12	22.7	21	24.2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신장세를 보여 아시아와 북미지역의 수출액이 각각 131억 달러와 1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5.1억 달러와 4.4억 달러가 증가하여,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중국의 농산물수출 최다국 순으로 나열하고 그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본이 57억 달러로 0.1% 감소, 홍콩이 20.8억 달러로 9.8% 증가, 한국이 20.5억 달러로 24% 증가, 미국이 16.8억 달러로 33% 증가, 말레이시아가 5.7억 달러로 52% 증가, 인도네시아 5.3억 달러로 86% 증가하였다.

북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아시아와 남미로부터의 급속한 수입증가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북미는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지역으로서 2002년 중국은 북미로부터 32.2억 달러를 수

입하여 전년대비 3.3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남미와 아시아로부터 수입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각각 27.7억 달러와 26.5억 달러로 전년대비 3.7억 달러와 3.3억 달러가 증가하여 이미 수입시장 다면화가 이루어졌다. 브라질, 러시아, 칠레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북한,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캐나다, 태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서로 약간씩 다르게 감소하였다.

2002년 중국의 농산물 최다수입국 순으로 나열하고 그 증감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7.2억 달러로 2.6% 감소, 오스트레일리아가 14.5억 달러로 6.8% 증가, 브라질이 11.4억 달러로 46% 증가, 아르헨티나가 8.9억 달러로 15% 감소, 말레이시아가 7.2억 달러로 77% 증가, 러시아가 7.2억 달러로 77% 증가, 캐나다가 4.9억 달러로 35% 감소하였다.

2.5. 중국 전지역에서 수출 증가, 서부지역은 수입 대폭 감소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동·중·서부지역이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각각 9.7%, 25%, 25.8%로 이 지역들은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의 각각 78%, 15%, 7%의 비중을 차지한다. 북경시, 천진시, 사천성, 강서성의 수출이 각각 10%, 4%, 11%, 3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시는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농산물 수출 최다 10위의 성·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둥성 11%, 광둥성 13%, 절강성 5%, 요녕성 15.7%, 복건성 4%, 길림성 41%, 강소성 12.8%, 상해시 7.2%, 하북성 19%이고, 흑룡강성은 북경을 제치고 10위로 성장하였으며 수출이 15% 증가하였다. 이 10개 성·시의 농산물수출액은 중국 농산물수출액의 약 80.4%를 차지한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동부와 중부지역은 약간 증가하였고, 서부지역의 수입은 대폭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입 최다 10위의 성·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둥성 9% 증가, 산둥성 5.8% 감소, 강소성

23% 증가, 상해시 11% 증가, 북경시 16.4% 감소, 요녕성 17.6% 감소, 절강성 1.5% 증가, 복건성 42% 증가, 하북성 1.6% 증가, 천진시가 43% 증가하였다. 이 10개 성·시의 농산물수입액은 중국 농산물수입액의 90.7%를 차지한다.

3. 수출의 대폭 증가와 수입의 소폭 증가 원인

3.1. 농산물무역체제의 개혁과 정책조정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에 대해 이미 많은 방면의 개혁과 조정을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세를 대폭 감축하였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은 연속해서 4차에 걸쳐 적극적으로 농산물 평균 관세율을 45.6%에서 21.2%로 인하하였다.

둘째,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왔다. 대두 등 농산물 수입할당 관리와 허가증 제도를 점차 축소하는 대신 관세화로 전환하여왔다.

셋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시장 다원화 전략을 시행하게 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장애가 있었으나 수출시장을 전환하여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넷째, 농업구조조정은 중국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우량밀, 우량대두 및 옥수수의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생산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증가 시켰다.

다섯째, 무역과 유통정책의 조정이다. 2002년 3월부터 'GMO 관리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대두와 유채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종전의 옥수수, 밀, 쌀 및 대두박 수출시 부과하던 수출세율 개정을 통해 수출단가를 낮추었고, 대두, 옥수수 등의 철도 운송시 운임에 추가 부과하던 '철도건설기금 면제정책'을 실시하여 중국 곡물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3.2. 2002년 국제농산물 가격의 상승

2002년부터 세계 주요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주생산국에서 생산량이 감소되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중국의 국제농산물시장가격 관측결과에 의하면, 2002년 10월은 전년 동기에 비해 밀의 현물가격은 45%, 옥수수는 30%, 쌀은 13%, 대두는 25%, 대두유는 38%, 유채유는 24%, 종려유는 53%, 면화는 53%가 각각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내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어 국내와 국제농산물가격이 상반된 현상을 일으켜 중국의 밀, 대두유 등의 품종은 국제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대두 등의 품종은 수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중국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다.

3.3. 중국내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

중국은 과거 민감 농산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계획생산 및 관리를 실행하였으나, WTO 가입이후 동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였다. 또, 식량작물, 유지작물, 면화와 식용당 등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수입할당량을 대폭 늘렸으며, 할당물량내에 대해서는 저관세를 부과하였다. 할당량은 밀 846.8만톤, 옥수수 585만톤, 쌀 199.5만톤, 두유 258.1만톤, 종려유 240만톤, 유채유 87.89만톤, 면화 81.85만톤, 식용당 176.4만톤 등이다. 그러나 2002년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실제수입량은 수입할당량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수입할당량을 기준으로 볼 때 밀, 옥수수, 쌀은 겨우 수입할당량의 7.5%, 0.1%와 11.9%를 각각 수입하였고, 대두유, 종려유와 유채유 또한 수입할당량의 34.6%, 92.5%와 8.9%를 각각 수입하였으며, 면화와 식용당은 67.1%와 20.9%를 각각 수입하였다.

관세할당량의 증가와 관세 인하는 중국 국내시장의 개방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2년 농산물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농산물의 수입 증가는 결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생산이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과잉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내 식량가격이 하락하여 2002년 국제시장의 식량이 중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할당제가 큰 작용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2003년 중국의 농수산물무역 전망

중국의 농업관련 및 전문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동시에 수입증가가 예상외로 적은 주요 원인을 ①농산물 무역체제의 개혁과 정책조정, ②2002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 ③중국내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중국이 WTO 가입한 후 첫해인 2002년도에는 시장개방이 농업 부문에 미친 충격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3년 중국 농산물의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시 약속한 대로 2002년에 이어 계속해서 인하되어 향후 국제시장에서 수입되는 중국 농산물의 가격은 더욱 하락될 것이며, 2002년 국제농산물시장의 주요농산물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지 불투명하나 대체로 2003년 중국은 2002년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식량작물의 수입은 다소 증가

2003년도 중국의 식량무역은 세계 곡물재고량과 곡물생산량, 그리고 중국내 수급상황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대체로 수입이 고급곡물 위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곡물재고량은 미국 농업부 등 식량관련 예측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2002/03년 세계 곡물기말재고량은 전년에 비해 18.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 밀, 옥수수 등의 재고량이 대부분 대폭 하락하고, 이러한 재고량 감소 요인은 2003년 국제곡물가격을 계속해서 비교적 높게 유지되게 할 것이다.

둘째, 세계 곡물공급량은 다시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제식량가격의 상승은 이미 식량생산을 자극하고 있다. 만약 2003년에는 전년에 비해 재해가 감소된다면 생산은 증가되어 국제식량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02년 5월 농업법을 제정한 후 식량 등 농산물에 대한 보조를 대폭 증가하였다. 그 정책의 효과는 200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식량생산량 증가는 곧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져 국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중국 국가경제위 무역시장국이 2003년 초에 공포한 600종의 주요 상품의 2003년 상반기 전국시장 수급현황에 따르면, 식량 수급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향상 등으로 우량밀이나 우량쌀 등 고급곡물 공급은 약간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 3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2003년 곡물가격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세가 예상되므로 중국의 식량무역은 전년에 비해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고급 곡물 위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2. 유지작물 · 유지(油脂) 수입도 다소 증가

유지작물과 유지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이나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내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최근 미국 농업부, 독일, 세계은행 등의 예측에 의하면, 2002/03 시장년도 국제시장의 유지작물과 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유채와 대두생산량은 증가하여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채

수입량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대두 수입량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공포한 GMO 안전관리정책의 엄격한 적용정도 및 집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4.3.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수출은 계속 증가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축산물과 수산물 수출은 EU의 점진적인 수입금지 해제조치와 중국의 품질개선 노력에 의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채소와 과일의 수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에 의하여 무역마찰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http://www.agri.gov.cn>(中國農業部), <http://www.cngrain.com>(中華糧網)에서
(朴恩喆 · 喬忠 · 安玉發, 010-6239-9952, parkec@hanmail.net, 中國農業大學)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EU, 농업모델리티 1차안 거부 반응
WTO 회원국, 농업모델리티 협상연장 준비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하빈슨 의장은 지난 2월 12일 협상의 세부 원칙을 확정짓기 위한 1차 초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차 초안에서는 2000년 추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의 논의결과와 수출입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쟁점별로 의장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RQ 관리방법, 허용보조 요건, 수출신용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를 첨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초안에서 의장이 제시한 대안은 향후 협상과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최초의 대안으로서, 협상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협상의 기초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부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은 3월말 확정될 예정이나, 1차 초안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UR협상 결과보다 훨씬 큰 폭의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장초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본 후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1. 시장접근

우선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의장초안은 UR의 감축방식을 채택하여 수입국에게 신축성을 제공하고 있는 듯 하지만, 품목별 관세수준을 다단계로 나누어 높은 관세는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식의 공식을 제시하였다.

수출국들이 주장했던 품목간 관세격차 해소를 위한 관세조화의 방식이 일부 채택되었음을 뜻한다. 선진국의 경우 9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5년간 평균 60%, 최소 45%의 폭으로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소감축률 15%(민감품목 10%)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관세율이 15% 이상, 90% 미만인 품목인 경우에는 평균 50%, 최소 35%를 감축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전략품목(Strategic Product, SP)에 대해서는 단순평균 10%, 최소 5%만 감축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90% 이상인 품목은 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서 개도국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의장초안이 적용된다면 엄청난 국내 농업 피해가 예상된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수출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최근 연도(1999/01)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인 경우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개도국 6.6%). 또한 시장접근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허표에 설정된 TRQ의 수입이 미소진되지 않도록 TRQ 관리 및 국영무역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출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선진국의 경우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이행기간 이후 폐지하는 대신 개도국에게는 이 제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하였다. 단 개도국의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경우 특별 감축률(단순평균 10%, 최소 5%)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EU가 주로 주장하였던 지리적표시, 식품안전, 표시제 등 NTC 관련 사항은 세부원칙에 반영시키기 위해 추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의장초안은 관세 감축에서 UR공식에 따른 감축방식을 채택하되 감축폭에 있어서는 수출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감축률을 선택함으로써 수출입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에는 관세감축

에서 UR공식에 따라 평균관세율 감축방식이 채택될 경우 관세상한이 100% 내외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장은 수입국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쿼터물량(TRQ)은 최근년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인 경우 10%까지 확대하고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긴급관세제도(SSG)는 선진국의 경우 이행 마지막년도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내보조

의장 초안은 국내보조 감축에서도 UR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감축대상보조의 감축률을 선진국의 경우 5년간(개도국 10년) 60%(개도국 40%)로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감축대상보조는 1999/01년 평균지급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품목별 보조금지급의 조정을 제한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와 EU가 주로 사용하는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Blue Box)은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정선택의 신축성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용보조의 경우에는 기준을 강화하여 직접지불제도의 신규도입과 원용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우대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허용보조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농촌활력과 문화계승 유지 목적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직접지불, 소득보험과 소득안전망 보조 등이다. 이와 같이 의장초안은 국내보조 분야에서도 개도국에게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보조감축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가 UR 때보다 확대되었으며, 개도국의 주장대로 기

존 농업협정문의 개도국우대 조항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허용보조의 경우에도 개도국에게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3. 국내 파급영향

국내 파급영향은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에서 가장 크게 초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와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비교하면 2010년 농업총소득은 약 2조 9천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이중 2조 7천억 원은 쌀소득 감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농경연,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상대책’에 관한 세미나 자료).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고추, 마늘, 양파, 참깨의 소득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2010년 약 1천억 원이 감소하고, 기타 맥류와 서류, 축산물에서도 소득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쌀을 제외한 총 농업소득의 감소는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보조의 경우 개도국지위가 상실될 경우 우리의 감축대상보조(AMS)는 2004년 1조 4,900억원에서 2010년 5,960억원으로 하락하여 쌀 수매제도는 물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도 큰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농정의 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품목별 AMS는 1999/01년의 이행실적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실적이 있는 쌀, 보리, 누에고치, 유채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원규모 및 대상품목이 늘어나야 하는데 보조의 추가도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농정의 신축적인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기준에 따라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품목별 농업생산액 대비 2.5%까지 감축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일부 품목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나, 향후 이 조치를 활용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현행 농업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은 블루박스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초안에서는 1999/01년에 이행한 실적을 상한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이행실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블루박스의 신규 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4. 대응과제

앞으로 농업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와 여유가 있는 분야를 정리하여 취약분야는 적극적,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여유있는 분야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의장 초안의 평균감축률을 조정하더라도 구간별 최소감축률과 증가율의 조정을 통해 고율관세 품목의 최소감축률을 낮은 수준에서 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는 유지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발동이 어렵게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추가되는 관세수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에는 내수용 AMS 감축률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국내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의 도입을 적극 저지하여 AMS 이행실적이 없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TC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고, 의장초안의 허용보조는 각국의 제안이 모두 반영된 관계로 협상의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 NTC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장초안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선진국에 적용되는 감축률은 크게 확대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강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무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관계로 개도국지위의 확보에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도국우대가 대폭 확대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으므로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개도국지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도국지위 문제는 세부원칙 설정 등 농업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고 이행계획서 작성 이후 양자협상에서 거론될 사항이나 미리부터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국과의 사전적인 입장타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범 부처적인 외교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도국지위의 결정은 '자기결정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개도국의 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개도국이라는 논리는 국가전체의 산업구조조정의 진전상태 등 동태적인 발전측면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농촌인구의 비중과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농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영농규모, 생산기반 정비의 정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방식을 선택하고 양자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는 대신 해당 품목 이외의 품목이나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중요 협상쟁점에 대하여 사전적 의견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통일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도국지위 확보에 대한 회의론 확산과 내부적 이견 노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부원칙 확정 못지 않게 이행계획서의 작성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작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방어논리, 상대방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민,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협상대안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협상추진 과정은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설명하여 협상타결 시 일시에 초래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양정제도 개편과 다양한 허용보조정책의 도입,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장기적 농업정책의 수립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재욱 jaeoklee@krei.re.kr 02-3299-4363 농정연구센터)

EU, 농업모델리티 1차안 거부 반응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는 미국과 EU를 비롯해 다수의 개도국을 포함한 22개국 무역담당각료가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 직전에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하빈슨 의장이 금년 3월 말에 확립을 목표로 하는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협상합의를 위한 양보 없이 폐막되었다.

WTO는 2005년 1월 1일까지 최종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으나, 농업교섭은 물론 비농산품과 서비스 등의 중요 과제가 남아 있다. 농업모델리티 1차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EU의 피슬러 농업담당위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EU 동향을 소개한다.

1. 더욱 심화된 각국 대립

WTO 수파차이 사무국장은 도쿄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무역담당각료에 대하여 DDA는 긴박한 협상난관에 봉착하여 여전히 본질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협상이 합의에 이를지는 예측 불허 상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주장의 상이점을 좁히는 데 실패하였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단순히 WTO 가맹국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만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수입수량, 보조금 인하에 관한 실질적인 자유화기준을 마련하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 회담의 하빈슨 의장이 낸 제안에 대하여 2월 24일부터 제네바에서 논의를 하지만 벌써부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하빈슨 의장에 의한 모델리티 1차안은 모든 가맹국에게 비판을 받았다. 미국, 케언즈 그룹은 협상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하여 자유화를 한층 가속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과 EU는 가맹국간 명백히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이라 하여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U의 피솔러 농업담당위원은 즉각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제안에는 WTO 가맹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소가 거의 없다. 가맹국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의 전체적인 조화가 없다. 이익을 얻는 것은 주로 미국과 케언즈 그룹과 같은 농산물 수출대국인 한편, 손실을 입는 것은 주로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를 계획적으로 감축하고 사회, 경제, 환경상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국내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하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협상의 가속은 커녕 3월 말일까지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한다는 예정도 늦어질지 모른다.”

또한 “WTO는 무역을 다루는 기관이고, 향후 농업협상에 있어서의 약속은 균형을 가져야 하며, 농업정책은 무역왜곡적인 정책을 축소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빈슨 의장의 제안은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선진국 중에서 UR 협정대로 약속을 실시해 온 국가는 벌칙을 받는 한편, 방향 전환한 국가는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서 식품안전성에 이르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무시되고,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면만이 강조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정부간 의견의 격차는 매우 커서, WTO 도쿄 비공식각료회의에 참석한 각료의 대부분은 하빈슨 의장에게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하기까지 남겨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공통의 이익을 조정하여 포함시킬 것을 하빈슨 의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2. 농업 세부원칙 제안을 거부한 EU

농업협상의 난관이 타개된다고 하여도 EU에게는 무거운 책무가 남게 된다. EU의 농업보조금은 세계 최대 규모로 가장 무역왜곡적이다. 예를 들면 사탕과 같은 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잘 활용하고 있다. 피슬러 위원은 이번 하빈슨 의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탕을 위한 EU 공통시장기구(CMO)는 바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CMO를 지킬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는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사탕을 연간 약 1800만톤(2002년)이나 생산하고 있고, EU에 의한 기존의 보조금지원 수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설 탕의 EU역내로의 수입에 관해서는 고관세(현행 120%)를 설정함으로써 보호를 계속해 왔다. EU 역내의 사탕가격과 국제시장의 사탕가격에는 큰 괴리가 있어, 사탕에 대한 EU의 보호는 WTO에 의한 관세감축안에 의해 다른 품목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EU의 공통농업정책(CAP) 개혁에 대해서는 EU 가맹국(15개국) 간에서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EU의 통합된 전략을 대외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면은 부정할 수 없다. 피슬러 위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도쿄에 체류하면서 정력적으로 양자간, 다자간 비공식회담을 갖고, WTO의 각료회담과 농업세부원칙제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U 역내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을 과제로 안고 있고, 급속한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피솔러 위원회는 하빈슨 의장에 의한 제안을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대국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수출입국간 균형이 명백히 결여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합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미국 등이 수출보조금 등을 온존시키고 감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개도국 등에게는 수출공세를 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후, 모델리티 2차안에 대해서는 1차안과는 다른 EU의 주장을 받아들인 새로운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CAP 개혁에 대한 EU의 의지

EU의 피솔러 위원회는 WTO 도쿄회의 직후 2월 18일에는 영국을 방문해 버밍엄에서 영국의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Union) 연차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EU의 CAP 개혁과 WTO 농업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 피솔러 위원회는 올해 1월 말에 WTO에 제출한 농업협상에 관한 EU 농업모델리티 제안의 목적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즉, 첫째 앞으로 EU 역내 농업인을 보호할 것, 둘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상업적 이익확보를 추구할 것, 셋째 식품의 안전, 원산지 표시, 동물 보호, 그리고 환경보전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 가운데 거론될 것을 보증할 것, 넷째 개도국, 특히 저항력이 약해 피해를 입기 쉬운 개도국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에서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이다. 이상의 관점에서도 하빈슨 의장에 의한 모델리티 1차안은 EU에게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솔러 위원회는 3월 말까지 농업모델리티 확립을 위해 어려운 협상에 임하는 결의라는 것을 표명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즉, 첫째 CAP 개혁을 통해 우리는 농업인에 대해 명확한 정책전망과 안심할 수 있는 장

래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업인은 장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지역농촌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둘째, 2013년까지 창설되는 CAP 정책은 25 개국 또는 그 이상의 가맹국으로 구성되는 확대 EU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본질적인 지침이 된다. 셋째, 우리는 현재의 WTO 협상에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상업적, 농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하였다.

EU는 경쟁과 투자는 물론 식품의 안전, 환경,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새로운 WTO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EU는 가맹국간 상이점을 극복하여, WTO에서의 개혁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4. 농업협상의 전망

WTO 농업협상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는 특허와 의약품에 관한 WTO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약품 등 관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WTO 협상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반덤핑 협의에 반대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 그룹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지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는 WTO 협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은 DDA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EU의 동향이 향후 협상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CAP 개혁을 중시하는 EU이지만 DDA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향후 무역협상의 향방이 주목된다.

자료: <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WTO 회원국, 농업모델리티 협상연장 준비

WTO 회원국들은 지난 2월 12일 하빈슨 농업위원회 의장이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모델리티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참가하였다. 하빈슨 의장은 2차 초안 마련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2월 28일 공식 마무리회의에서 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5일간의 회의는 거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협상관계자들은 3월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모델리티협상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공연히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9월 중순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농업모델리티는 협상의 범위와 이행방법, 농업협상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도하협상에서 결정된 추진계획에 의하면 각 회원국들은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 이전에 “이 모델리티에 기초한 자국의 포괄적인 이행계획서(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협상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다른 협상부문과 함께 2005년 1월 1일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시장접근 분야가 걸림돌

5일간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중에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모델리티 초안에 대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불가리아, 일본), 제시된 목표의 ‘비현실성’에 대한 우려(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부터 관세, 수출보조, 국내보조의 감축의지 결여에 대한 비판(미국, 케언즈그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2월 전체회의 기간 중 회원국들은 기존입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서로 상대방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만 했다.

하빈슨 의장 초안 내용 중에서 회원국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은 시장접근 분야이다. 스위스는 급격한 감축에 가장 크게 반발한 8개국(스위스, 불가리아, 대만, 이스라엘,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노르웨이)을 대표한 연설에서 무역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간에 공정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현행 다자간 농산물협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EU와 일본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서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SIDS)인 모리셔스는 UR에서 적용했던 선형 관세감축 방식(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감축)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UR방식 동조국’ 75개국(EU 및 그 15개 회원국 포함)의 명단을 제출했다. 노르웨이의 무역 관계자는 “의장은 공동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공동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리티 초안에서 하빈슨 의장은 관세감축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고율관세를 저율관세보다 크게 감축시키는 UR방식과 스위스방식 양측의 요소를 절충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UR 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로는 EU와 EU 신규가입 예정국,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연안 국가, 일본, 한국, 인도가 있다. 중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 여타 주요 개도국들은 자국이 스위스 방식의 감축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거나, 선진국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화방식을 적용하기로 할 경우에만 미국과 케언즈가 주장하는 스위스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전망

관계자들은 미국과 EU 등 주요 무역 당사국들이 농산물 무역협상에서 타협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5개 회원국으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협상권한을 위임받는 어려운 절차가 금년 9월에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쥘릭 대표는 의회가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의 발언을 통해 협상이 “미국의 농민과 축산업자, 농업생산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이 제안했던 요구사항에서 후퇴하는데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자들은 로버트 쥘릭 대표가 “EU와 같은 무역 상대국들이 ‘일괄적으로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농업 이외의 주요 협상 분야에서 진전이 없이 농업부문의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 칸쿤 각료회의까지 남은 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최소한 TRQ 관리나 개도국 SSG의 세부방식 등 모델리티 초안의 특정부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이라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3월 31일 이후의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집트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삼 엘 세이크’에서 미니 각료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하빈슨 의장은 공식 모델리티 협상기간인 2002년 3월~2003년 3월 기간의 마지막 회의로서 3월25~31일에 개최될 예정인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2차 모델리티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료: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 7(2003. 3. 5)**에서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업통상대책단, 농업통상정보, 제2003-4호, 2003. 3. 6)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2)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2)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8억 99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5,647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소맥과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5억 1,179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2,17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18억 9,24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2/03년도에도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3.6% 줄어들어 2억 2,8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41.39	1,866.40	1,807.73	1,809.93	△3.0	0.1
공 급 량	2,403.83	2,407.41	2,316.63	2,321.72	△3.6	0.2
소 비 량	1,862.82	1,895.62	1,890.95	1,892.43	△0.2	0.1
교 역 량	232.66	236.89	228.52	228.47	△3.6	0.0
기말재고량	541.01	511.79	425.68	429.29	△16.1	0.8
기말재고율	29.0	27.0	22.5	22.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8,2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2/03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6.1% 감소한 4억 2,929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1/02년도 27.0%에서 22.7%로 4.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쌀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쌀 생산량은 2001/02년 보다 4.2% 줄어든 3억 8,16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4억 821만 톤으로 전년 보다 약 29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2,68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7.91	398.44	380.28	381.69	△4.2	0.4
공 급 량	543.38	545.16	513.12	515.74	△5.4	0.5
소 비 량	396.67	411.11	408.02	408.21	△0.7	0.0
교 역 량	24.12	26.94	26.92	26.81	△0.5	△0.4
기말재고량	146.72	134.05	105.10	107.53	△19.8	2.3
기말재고율	37.0	32.6	25.8	26.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보다 31.2% 늘어난 42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9.8%가 줄어든 1억 753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쌀 생산국의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은 26.3%로 2001/02년도의 32.6%보다 약 6.3%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소맥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5억 6,664만 톤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제외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1/02년 5억 8,389만 톤보다 약 1,131만 톤 증가한 5억 9,52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3.66	579.00	567.51	566.64	△2.1	△0.2
공 급 량	790.70	783.97	767.31	766.72	△2.2	△0.1
소 비 량	585.73	583.89	595.75	595.20	1.9	△0.1
교 역 량	102.82	108.09	102.92	102.24	△5.4	△0.7
기말재고량	204.97	200.08	171.56	171.52	△14.3	0.0
기말재고율	35.0	34.3	28.8	28.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밀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09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2/03년에는 1억 224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8.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기말재고량은 1억 7,152만 톤으로 전년보다 14.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34.3%에서 28.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옥수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9,253만 톤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6억 1,89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638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7,416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2%, 14.8%로 이들 두 국가가 약 8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9.8% 줄어든 1억 65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2,638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4.3% 포인트 줄어든 17.2%가 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7.71	598.30	590.52	592.53	△1.0	0.3
공 급 량	758.75	752.21	722.09	725.49	△3.6	0.5
소 비 량	604.84	619.25	617.30	618.91	△0.1	0.3
교 역 량	77.32	74.45	73.35	74.16	△0.4	1.1
기말재고량	153.91	132.96	104.79	106.58	△19.8	1.7
기말재고율	25.4	21.5	17.0	17.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5. 대두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9,288만 톤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1억 9,38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98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2.1% 증가한 6,183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1.37%, 브라질이 33.96%, 아르헨티나가 15.04%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0.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3,072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224만 톤과 비교하여 4.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1.7% 포인트 낮은 15.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75.10	184.30	190.89	192.88	4.7	1.0
공 급 량	202.86	214.93	223.08	225.12	4.7	0.9
소 비 량	171.86	183.89	191.95	193.86	5.4	1.0
교 역 량	55.50	55.15	61.40	61.83	12.1	0.7
기말재고량	30.63	32.24	30.65	30.72	△4.7	0.2
기말재고율	17.8	17.5	16.0	15.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표 6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3.38	545.16	513.12	515.74	△5.4	0.5
기초재고량	145.47	146.72	132.84	134.05	△8.6	0.9
생산량	397.91	398.44	380.28	381.69	△4.2	0.4
미국	5.94	6.74	6.60	6.60	△2.1	0.0
태국	17.06	17.50	16.50	17.20	△1.7	4.2
베트남	20.47	21.04	20.90	21.05	0.0	0.7
인도네시아	32.96	33.09	32.83	33.20	0.3	1.1
중국	131.54	124.31	121.80	121.80	△2.0	0.0
일본	8.64	8.24	8.07	8.07	△2.1	0.0
수입량	21.48	25.64	25.64	25.63	0.0	0.0
인도네시아	1.50	3.50	3.25	3.25	△7.1	0.0
중국	0.27	0.31	0.30	0.30	△3.2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396.67	411.11	408.02	408.21	△0.7	0.0
미국	3.68	3.88	3.92	3.92	1.0	0.0
태국	9.35	9.77	9.60	9.92	1.5	3.3
베트남	17.25	17.40	17.60	17.60	1.1	0.0
인도네시아	35.88	36.36	36.79	36.79	1.2	0.0
중국	134.36	134.58	134.80	134.80	0.2	0.0
일본	9.00	9.00	8.98	8.98	△0.2	0.0
수출량	24.12	26.94	26.92	26.81	△0.5	△0.4
미국	2.59	2.94	3.29	3.29	11.9	0.0
태국	7.52	7.24	7.75	7.75	7.0	0.0
베트남	3.53	3.24	4.25	4.25	31.2	0.0
기말재고량	146.72	134.05	105.10	107.53	△19.8	2.3
미국	0.89	1.22	1.00	1.02	△16.4	2.0
태국	1.90	2.40	0.66	1.93	△19.6	192.4
인도네시아	4.61	4.84	4.19	4.50	△7.0	7.4
중국	94.10	82.17	67.35	67.22	△18.2	△0.2
일본	1.66	1.46	1.06	1.06	△27.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표 7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90.70	783.97	767.31	766.72	△2.2	△0.1
기초재고량	207.04	204.97	199.80	200.08	△2.4	0.1
생산량	583.66	579.00	567.51	566.64	△2.1	△0.2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3.77	24.00	10.00	10.00	△58.3	0.0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70	103.70	13.7	0.0
중국	99.64	93.87	92.00	91.00	△3.1	△1.1
러시아	34.45	46.90	49.50	50.60	7.9	2.2
수입량	101.53	108.49	104.72	104.02	△4.1	△0.7
EU15	3.16	9.82	9.50	10.00	1.8	5.3
브라질	7.20	6.78	7.20	7.20	6.2	0.0
북아프리카	18.28	17.41	17.20	17.20	△1.2	0.0
파키스탄	0.05	0.35	0.50	0.50	42.9	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55	0.50	0.30	△45.5	△40.0
소비량	585.73	583.89	595.75	595.20	1.9	△0.1
미국	36.30	32.72	30.64	30.59	△6.5	△0.2
EU15	91.93	92.11	98.20	98.12	6.5	△0.1
중국	110.28	108.74	106.11	105.61	△2.9	△0.5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9.75	△0.3	0.0
러시아	35.16	38.08	40.50	40.60	6.6	0.2
수출량	102.82	108.09	102.92	102.24	△5.4	△0.7
미국	28.90	26.16	25.17	24.49	△6.4	△2.7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2	11.49	15.00	15.00	30.5	0.0
기말재고량	204.97	200.08	171.56	171.52	△14.3	0.0
미국	23.85	21.15	11.36	12.10	△42.8	6.5
EU15	13.38	10.80	11.18	11.00	1.9	△1.6
중국	91.88	76.59	61.97	61.17	△20.1	△1.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58.75	752.21	722.09	725.49	△3.6	0.5
기초재고량	171.04	153.91	131.57	132.96	△13.6	1.1
생산량	587.71	598.30	590.52	592.53	△1.0	0.3
미국	251.85	241.48	228.80	228.80	△5.3	0.0
아르헨티나	15.40	14.40	13.50	14.50	0.7	7.4
EU15	37.82	39.68	38.90	39.44	△0.6	1.4
멕시코	17.92	20.40	19.00	19.00	△6.9	0.0
동남아시아	15.17	15.07	14.52	14.37	△4.6	△1.0
중국	106.00	114.09	125.00	125.00	9.6	0.0
수입량	75.62	73.85	73.59	74.00	0.2	0.6
EU15	2.86	2.93	2.50	2.50	△14.7	0.0
일본	16.34	16.40	15.50	15.50	△5.5	0.0
멕시코	5.93	4.03	6.50	6.50	61.3	0.0
동남아시아	4.24	3.83	3.76	3.76	△1.8	0.0
한국	8.74	8.61	8.50	9.00	4.5	5.9
소비량	604.84	619.25	617.30	618.91	△0.1	0.3
미국	198.10	201.45	299.27	199.78	△0.8	0.3
EU15	40.30	41.60	41.40	41.60	0.0	0.5
일본	16.20	16.30	15.70	15.70	△3.7	0.0
멕시코	24.00	24.50	25.50	25.50	4.1	0.0
동남아시아	18.85	18.80	18.24	18.14	△3.5	△0.5
한국	8.62	8.74	8.46	8.96	2.5	5.9
중국	118.00	120.00	122.00	122.00	1.7	0.0
수출량	77.32	74.45	73.35	74.16	△0.4	1.1
미국	49.31	47.98	46.99	48.36	△3.4	△1.3
아르헨티나	9.68	9.60	8.60	9.60	0.0	11.6
중국	7.28	8.61	11.00	11.00	27.8	0.0
기말재고량	153.91	132.96	104.79	106.58	△19.8	1.7
미국	48.24	40.55	23.47	23.60	△41.8	0.6
아르헨티나	0.64	0.60	0.72	0.62	3.3	13.9
EU15	3.74	4.68	3.39	4.82	3.0	42.2
중국	83.13	68.65	60.75	60.75	△11.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표 9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1	2003.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02.86	214.93	223.08	225.12	4.7	0.9
기초재고량	27.76	30.63	32.19	32.24	5.3	0.2
생산량	175.10	184.30	190.89	192.88	4.7	1.0
미국	75.06	78.67	74.29	74.29	△5.6	0.0
아르헨티나	27.80	30.00	33.50	33.50	11.7	0.0
브라질	39.00	43.50	49.00	51.00	17.2	4.1
중국	15.40	15.41	16.40	16.40	6.4	0.0
수입량	55.13	56.36	60.92	61.29	8.7	0.6
EU15	19.34	20.58	20.17	20.60	0.1	2.1
일본	4.77	5.02	4.90	5.05	0.6	3.1
중국	13.24	10.38	14.50	15.00	44.5	3.4
소비량	171.86	183.89	191.95	193.86	5.4	1.0
미국	49.20	50.90	49.54	49.54	△2.7	0.0
아르헨티나	18.40	22.04	24.29	24.69	12.0	1.6
브라질	24.69	26.91	30.26	31.04	15.3	2.6
EU15	18.47	19.68	19.57	19.74	0.3	0.9
일본	5.08	5.21	5.14	5.30	1.7	3.1
중국	26.70	28.12	30.55	31.05	10.4	1.6
수출량	55.50	55.15	61.40	61.83	12.1	0.7
미국	27.10	28.92	25.31	25.58	△11.5	1.1
아르헨티나	7.42	6.00	9.70	9.30	55.0	△4.1
브라질	15.47	15.00	20.60	21.00	40.0	1.9
기말재고량	30.63	32.24	30.65	30.72	△4.7	0.2
미국	6.74	5.66	5.16	4.48	△20.8	△13.2
아르헨티나	7.93	10.19	10.20	10.00	△1.9	△2.0
브라질	8.38	11.07	10.19	10.93	△1.3	7.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5, February 11, 2003.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269 농산업경제연구센터)



통 계 자 료

- 표 1 국별 쇠고기 통계(한국)
- 표 2 국별 쇠고기 통계(중국)
- 표 3 국별 쇠고기 통계(일본)
- 표 4 국별 쇠고기 통계(터키)
- 표 5 국별 쇠고기 통계(필리핀)
- 표 6 국별 쇠고기 통계(인도)
- 표 7 국별 쇠고기 통계(미국)
- 표 8 국별 쇠고기 통계(캐나다)
- 표 9 국별 쇠고기 통계량(브라질)
- 표 10 국별 쇠고기 통계(베네수엘라)
- 표 11 국별 쇠고기 통계(유럽15)
- 표 12 국별 쇠고기 통계(폴란드)
- 표 13 국별 쇠고기 통계(러시아)
- 표 14 국별 쇠고기 통계(남아프리카공화국)
- 표 15 국별 쇠고기 통계(호주)
- 표 16 국별 쇠고기 통계(뉴질랜드)

표 1 국별 쇠고기 통계(한국)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37	24	0	0	24	0	100
1962	173	30	0	0	30	0	100
1963	218	38	0	0	38	0	100
1964	330	57	0	0	57	0	100
1965	282	49	0	0	49	0	100
1966	262	45	0	0	45	0	100
1967	256	44	0	0	44	0	100
1968	213	37	0	0	37	0	100
1969	218	37	0	1	38	0	97.4
1970	286	54	0	1	55	0	98.2
1971	274	48	0	1	49	0	98
1972	219	42	0	1	43	0	97.7
1973	261	45	2	2	45	0	100
1974	325	49	0	0	49	0	100
1975	470	71	0	0	71	0	100
1976	455	103	0	1	103	0	100
1977	471	106	0	8	111	2.7	95.5
1978	452	102	0	45	141	5.7	72.3
1979	527	118	0	60	172	8.1	68.6
1980	558	127	0	2	138	3.6	92
1981	414	94	0	34	127	4.7	74
1982	348	83	0	73	148	9.5	56.1
1983	371	90	0	67	160	6.9	56.2
1984	503	122	0	28	149	8.1	81.9
1985	750	161	0	4	168	5.4	95.8
1986	1,087	208	0	0	205	5.8	101.5
1987	1,006	206	0	0	210	3.8	98.1
1988	852	175	0	20	196	3.6	89.3
1989	567	124	0	83	198	8.1	62.6
1990	555	131	0	117	244	8.2	53.7
1991	545	136	0	176	308	7.8	44.2
1992	537	137	0	183	313	9.9	43.8
1993	687	176	0	132	317	6.9	55.5
1994	778	200	0	165	372	4	53.8
1995	780	214	0	229	451	1.6	47.5
1996	850	236	0	221	459	1.1	51.4
1997	1,125	310	0	226	508	6.5	61
1998	1,282	348	0	125	445	13.7	78.2
1999	1,095	305	0	242	542	12.2	56.3
2000	998	278	0	324	589	13.4	47.2
2001	729	220	0	246	535	1.9	41.1
2002	625	190	0	340	530	1.9	35.9

표 2 국별 쇠고기 통계(중국)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0	0	0	0	0	0	0
1962	0	0	0	0	0	0	0
1963	0	0	0	0	0	0	0
1964	0	0	0	0	0	0	0
1965	0	0	0	0	0	0	0
1966	0	0	0	0	0	0	0
1967	0	0	0	0	0	0	0
1968	0	0	0	0	0	0	0
1969	0	0	0	0	0	0	0
1970	0	0	0	0	0	0	0
1971	0	0	0	0	0	0	0
1972	0	0	0	0	0	0	0
1973	0	0	0	0	0	0	0
1974	0	0	0	0	0	0	0
1975	3,845	298	0	0	298	0	100
1976	4,180	324	0	0	324	0	100
1977	4,065	315	0	0	315	0	100
1978	4,000	310	0	0	310	0	100
1979	2,968	230	0	0	230	0	100
1980	3,322	269	0	0	269	0	100
1981	3,016	249	8	0	241	0	103.3
1982	3,100	266	12	0	254	0	104.7
1983	3,937	315	16	0	299	0	105.3
1984	3,869	373	15	0	358	0	104.2
1985	4,578	467	15	0	452	0	103.3
1986	5,550	589	26	0	563	0	104.6
1987	7,403	793	34	0	759	0	104.5
1988	8,552	958	54	0	904	0	106
1989	9,428	1,072	57	0	1,015	0	105.6
1990	10,883	1,256	155	0	1,101	0	114.1
1991	13,039	1,535	222	0	1,313	0	116.9
1992	15,192	1,803	75	1	1,729	0	104.3
1993	19,000	2,337	155	2	2,184	0	107
1994	24,479	3,270	238	4	3,036	0	107.7
1995	30,497	4,154	107	4	4,051	0	102.5
1996	26,859	3,557	103	4	3,458	0	102.9
1997	32,839	4,409	101	8	4,316	0	102.2
1998	35,872	4,799	88	11	4,722	0	101.6
1999	37,662	5,054	55	13	5,012	0	100.8
2000	39,648	5,328	53	16	5,291	0	100.7
2001	41,700	5,600	60	18	5,558	0	100.8
2002	43,700	5,880	56	18	5,842	0	100.7

표 3 국별 쇠고기 통계(일본)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814	143	0	8	150	0	95.3
1962	844	146	0	7	153	0	95.4
1963	1,097	186	0	7	193	0	96.4
1964	1,290	224	0	9	233	0	96.1
1965	1,168	216	0	15	232	0	93.1
1966	813	154	0	19	173	0	89
1967	753	159	0	20	178	0	89.3
1968	806	176	0	19	195	0	90.3
1969	1,154	236	0	27	263	0	89.7
1970	1,299	278	0	33	311	0	89.4
1971	1,254	296	0	59	356	0	83.2
1972	1,210	317	0	82	400	0	79.2
1973	842	246	0	182	428	0	57.5
1974	1,165	292	0	77	381	8.9	76.6
1975	1,270	353	0	64	411	9.7	85.9
1976	1,023	298	0	130	436	7.3	68.3
1977	1,198	361	0	121	478	7.5	75.5
1978	1,263	403	0	143	541	3.1	74.5
1979	1,229	402	0	185	576	4.9	69.8
1980	1,231	418	0	174	590	5.1	70.8
1981	1,366	471	0	174	625	8	75.4
1982	1,399	481	0	174	655	7.6	73.4
1983	1,433	495	0	196	686	8	72.2
1984	1,536	535	0	208	730	9.3	73.3
1985	1,576	555	0	216	780	7.6	71.2
1986	1,554	559	0	256	830	5.3	67.3
1987	1,507	565	0	315	880	5	64.2
1988	1,461	570	0	380	900	10.4	63.3
1989	1,392	548	0	498	986	15.6	55.6
1990	1,390	549	0	537	1,073	15.6	51.2
1991	1,451	574	1	508	1,142	9.3	50.3
1992	1,491	592	1	591	1,190	8.2	49.8
1993	1,511	593	0	731	1,302	9.2	45.5
1994	1,537	602	0	842	1,446	8.2	41.6
1995	1,506	601	0	922	1,513	8.5	39.7
1996	1,384	555	0	899	1,438	10	38.6
1997	1,337	530	0	909	1,452	9	36.5
1998	1,322	530	0	943	1,479	8.4	35.8
1999	1,332	537	0	959	1,475	9.9	36.4
2000	1,303	530	0	1,016	1,534	10.3	34.5
2001	1,135	465	0	955	1,381	14.3	33.7
2002	1,170	475	0	880	1,365	13.7	34.8

표 4 국별 쇠고기 통계(터키)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998	142	0	0	142	0	100
1962	2,180	153	0	0	153	0	100
1963	2,037	148	0	0	148	0	100
1964	1,988	140	0	0	140	0	100
1965	2,108	147	0	0	147	0	100
1966	2,326	164	0	0	164	0	100
1967	2,273	156	0	0	156	0	100
1968	2,437	165	0	0	165	0	100
1969	2,817	188	0	0	188	0	100
1970	2,870	184	0	0	184	0	100
1971	2,505	165	0	0	165	0	100
1972	2,300	145	0	0	145	0	100
1973	2,500	161	0	0	161	0	100
1974	3,265	200	0	0	205	9.8	97.6
1975	3,472	213	0	0	213	9.4	100
1976	3,317	180	0	0	190	5.3	94.7
1977	3,117	199	0	0	194	7.7	102.6
1978	2,787	163	0	0	168	6	97
1979	3,678	225	0	0	220	6.8	102.3
1980	3,196	200	0	0	205	4.9	97.6
1981	3,632	201	2	0	200	4.5	100.5
1982	3,800	210	12	0	197	5.1	106.6
1983	4,000	220	13	0	202	7.4	108.9
1984	4,100	225	13	0	217	4.6	103.7
1985	4,200	230	4	37	243	12.3	94.7
1986	4,250	235	1	24	260	10.8	90.4
1987	4,300	430	1	23	460	4.3	93.5
1988	4,350	457	1	12	478	2.1	95.6
1989	4,400	561	1	6	561	2.7	100
1990	4,500	518	1	10	527	2.9	98.3
1991	4,300	516	0	25	536	3.7	96.3
1992	4,400	550	0	30	567	5.8	97
1993	4,350	566	1	32	592	6.4	95.6
1994	4,250	574	0	9	598	3.9	96
1995	4,450	623	0	42	630	9.2	98.9
1996	4,250	595	0	12	600	10.8	99.2
1997	4,150	590	0	0	593	10.5	99.5
1998	4,100	605	0	0	610	9.3	99.2
1999	4,160	615	0	0	620	8.4	99.2
2000	4,150	625	0	0	630	7.5	99.2
2001	4,150	640	0	0	640	7.3	100
2002	4,050	640	0	0	640	8.1	100

표 5 국별 쇠고기 통계(필리핀)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80	57	0	12	69	0	82.6
1962	457	69	0	20	88	0	78.4
1963	483	73	0	13	86	0	84.9
1964	504	76	0	16	93	0	81.7
1965	530	80	0	13	93	0	86
1966	620	93	0	12	105	0	88.6
1967	540	83	0	11	94	0	88.3
1968	510	75	0	18	93	0	80.7
1969	576	96	0	16	112	0	85.7
1970	470	80	0	9	89	0	89.9
1971	448	76	0	9	85	0	89.4
1972	388	65	0	5	70	0	92.9
1973	1,564	239	0	1	240	0	99.6
1974	1,781	265	0	3	268	0.8	98.9
1975	1,268	203	0	12	215	0.9	94.4
1976	461	76	0	9	85	2.4	89.4
1977	442	74	0	18	92	2.2	80.4
1978	587	99	0	18	106	12.3	93.4
1979	503	85	0	9	87	23	97.7
1980	532	90	0	6	91	27.5	98.9
1981	511	86	0	8	94	26.6	91.5
1982	520	87	0	10	110	10.9	79.1
1983	519	86	0	6	102	2	84.3
1984	530	88	0	1	91	0	96.7
1985	500	84	0	2	83	3.6	101.2
1986	569	95	0	4	97	5.2	97.9
1987	668	112	0	6	115	7	97.4
1988	736	124	0	7	135	3	91.8
1989	780	132	0	13	143	4.2	92.3
1990	763	132	0	16	145	6.2	91
1991	768	139	0	15	155	5.2	89.7
1992	723	131	0	21	158	1.3	82.9
1993	737	133	0	25	157	1.9	84.7
1994	752	135	0	50	183	2.7	73.8
1995	770	139	0	66	203	3.5	68.5
1996	900	162	0	82	227	10.6	71.4
1997	980	176	0	107	267	15	65.9
1998	1,089	196	0	81	265	19.6	74
1999	1,125	202	0	99	297	18.9	68
2000	1,225	220	0	118	343	14.9	64.1
2001	1,200	215	0	92	330	8.5	65.2
2002	1,175	210	0	100	335	0.9	62.7

표 6 국별 쇠고기 통계(인도)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438	157	0	0	157	0	100
1962	1,446	158	0	0	157	0	100.6
1963	1,454	158	0	0	158	0	100
1964	1,463	159	0	0	159	0	100
1965	1,472	161	0	0	161	0	100
1966	1,587	170	0	0	170	0	100
1967	1,598	171	0	0	171	0	100
1968	1,610	173	0	0	173	0	100
1969	1,623	177	0	0	177	0	100
1970	1,635	176	0	0	176	0	100
1971	1,647	179	0	0	179	0	100
1972	1,660	181	0	0	181	0	100
1973	1,673	183	0	0	183	0	100
1974	1,686	187	5	0	182	0	102.8
1975	4,025	604	4	0	600	0	100.7
1976	4,055	609	9	0	600	0	101.5
1977	4,085	615	14	0	601	0	102.3
1978	4,125	624	17	0	607	0	102.8
1979	4,185	635	35	0	600	0	105.8
1980	4,225	642	55	0	587	0	109.4
1981	4,500	675	60	0	615	0	109.8
1982	4,720	710	65	0	645	0	110.1
1983	4,930	740	45	0	695	0	106.5
1984	5,140	770	50	0	720	0	106.9
1985	5,300	795	45	0	750	0	106
1986	11,870	1,631	55	0	1,576	0	103.5
1987	10,692	1,603	60	0	1,543	0	103.9
1988	12,617	1,849	65	0	1,784	0	103.6
1989	13,840	2,070	70	0	2,000	0	103.5
1990	14,409	2,161	85	0	2,076	0	104.1
1991	9,753	1,459	129	0	1,330	0	109.7
1992	9,185	1,381	149	0	1,232	0	112.1
1993	8,819	945	163	0	782	0	120.8
1994	9,851	1,025	177	0	848	0	120.9
1995	10,710	1,100	196	0	904	0	121.7
1996	8,800	925	204	0	721	0	128.3
1997	10,999	1,430	215	0	1,215	0	117.7
1998	12,250	1,593	245	0	1,348	0	118.2
1999	12,750	1,660	257	0	1,403	0	118.3
2000	13,000	1,700	300	0	1,400	0	121.4
2001	13,600	1,770	375	0	1,395	0	126.9
2002	14,250	1,810	410	0	1,400	0	129.3

표 7 국별 쇠고기 통계(미국)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4,551	7,426	16	470	7,868	1.2	94.4
1962	34,768	7,195	16	352	7,535	1.2	95.5
1963	35,274	7,426	16	470	7,842	1.7	94.7
1964	39,310	7,411	15	653	8,030	1.9	92.3
1965	40,959	8,957	24	427	9,387	1.3	95.4
1966	41,036	9,360	18	546	9,866	1.5	94.9
1967	40,407	9,531	19	602	10,128	1.3	94.1
1968	41,034	9,804	17	689	10,469	1.3	93.7
1969	40,584	9,902	17	744	10,603	1.6	93.4
1970	39,559	10,103	18	824	10,917	1.4	92.5
1971	39,730	10,184	24	797	10,944	1.6	93.1
1972	39,335	10,374	28	905	11,249	1.5	92.2
1973	36,506	9,808	41	917	10,647	2	92.1
1974	40,528	10,715	29	747	11,453	1.6	93.6
1975	46,870	11,271	24	808	12,080	1.4	93.3
1976	48,726	12,166	41	950	13,024	1.6	93.4
1977	48,073	11,844	47	890	12,754	1.2	92.9
1978	44,272	11,279	74	1,053	12,160	2	92.8
1979	36,932	9,924	78	1,103	10,982	1.9	90.4
1980	36,795	9,998	80	946	10,877	1.8	91.9
1981	38,151	10,354	100	799	11,097	1.4	93.3
1982	39,264	10,425	115	889	11,176	1.6	93.3
1983	40,136	10,748	125	873	11,476	1.7	93.7
1984	41,259	10,929	152	838	11,594	1.9	94.3
1985	40,048	10,997	151	948	11,819	1.6	93
1986	41,046	11,292	239	978	12,036	1.6	93.8
1987	38,792	10,884	277	1,040	11,660	1.5	93.3
1988	37,880	10,880	313	1,092	11,643	1.7	93.5
1989	36,328	10,633	464	988	11,196	1.4	95
1990	35,277	10,464	456	1,069	11,048	1.7	94.7
1991	34,369	10,534	539	1,091	11,076	1.7	95.1
1992	34,489	10,613	601	1,107	11,146	1.5	95.2
1993	34,746	10,584	578	1,089	11,019	2.2	96
1994	35,691	11,194	731	1,075	11,528	2.2	97.1
1995	37,294	11,585	826	954	11,726	2	98.8
1996	38,575	11,749	851	940	11,903	1.5	98.7
1997	38,111	11,714	969	1,063	11,767	1.8	99.5
1998	37,138	11,804	985	1,199	12,052	1.5	97.9
1999	37,642	12,124	1,093	1,304	12,327	1.5	98.3
2000	37,588	12,298	1,119	1,375	12,503	1.9	98.4
2001	36,576	11,983	1,030	1,434	12,349	2.2	97
2002	35,197	11,762	993	1,472	12,324	1.6	95.4

표 8 국별 쇠고기 통계(캐나다)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602	655	17	14	651	2.6	100.6
1962	3,663	665	13	17	669	2.5	99.4
1963	3,728	703	12	17	705	3	99.7
1964	4,120	778	19	12	769	3	101.2
1965	4,670	867	46	8	829	2.8	104.6
1966	4,405	859	36	13	838	2.6	102.5
1967	4,348	846	19	33	860	1.6	98.4
1968	4,442	892	31	28	891	1.4	100.1
1969	4,081	846	31	86	890	2.6	95.1
1970	4,021	851	54	101	899	2.5	94.7
1971	4,211	889	52	78	919	2	96.7
1972	4,037	922	41	97	973	2.4	94.8
1973	3,894	906	40	103	966	2.7	93.8
1974	4,245	953	26	86	1,017	2.2	93.7
1975	5,201	1,088	20	87	1,153	2.1	94.4
1976	5,480	1,166	59	143	1,237	3	94.3
1977	5,352	1,142	51	89	1,190	2.3	96
1978	4,765	1,063	46	102	1,118	2.5	95.1
1979	3,967	948	53	87	982	2.9	96.5
1980	4,057	971	65	81	987	2.8	98.4
1981	4,253	1,014	79	81	1,027	1.7	98.7
1982	4,386	1,025	83	88	1,033	1.4	99.2
1983	4,328	1,033	82	92	1,038	1.8	99.5
1984	4,218	990	106	115	1,001	1.7	98.9
1985	4,235	1,029	117	115	1,025	1.9	100.4
1986	4,150	1,035	104	112	1,048	1.3	98.8
1987	3,704	977	93	135	1,021	1.2	95.7
1988	3,578	973	86	153	1,033	1.8	94.2
1989	3,624	980	108	158	1,032	1.6	95
1990	3,354	924	110	185	1,002	1.4	92.2
1991	3,153	867	109	217	973	1.6	89.1
1992	3,232	898	159	221	960	1.7	93.5
1993	3,033	860	206	263	909	2.6	94.6
1994	3,065	903	244	279	931	3.3	97
1995	3,146	928	245	245	934	2.7	99.4
1996	3,506	998	319	228	909	2.5	109.8
1997	3,631	1,075	382	244	937	2.5	114.7
1998	3,768	1,150	428	232	951	2.7	120.9
1999	3,929	1,238	492	254	994	3.2	124.5
2000	3,842	1,246	523	263	992	2.6	125.6
2001	3,761	1,235	574	299	961	2.6	128.5
2002	3,675	1,214	580	320	955	2.5	127.1

표 9 국별 쇠고기 통계량(브라질)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7,141	1,369	36	0	1,333	0	102.7
1962	6,989	1,356	30	0	1,326	0	102.3
1963	7,065	1,361	22	0	1,339	0	101.6
1964	7,523	1,437	31	0	1,406	0	102.2
1965	7,843	1,497	63	0	1,434	0	104.4
1966	7,608	1,452	40	0	1,412	0	102.8
1967	7,810	1,506	24	0	1,482	0	101.6
1968	8,732	1,694	71	0	1,623	0	104.4
1969	9,480	1,826	109	0	1,717	0	106.3
1970	9,560	1,845	124	1	1,722	0	107.1
1971	9,400	1,825	158	7	1,674	0	109
1972	10,240	2,020	228	1	1,794	0	112.6
1973	12,260	2,450	170	2	2,281	0	107.4
1974	10,500	2,100	102	53	2,051	0	102.4
1975	11,000	2,150	101	29	2,077	0	103.5
1976	11,300	2,230	156	27	2,100	0	106.2
1977	12,500	2,450	191	35	2,294	0	106.8
1978	11,200	2,200	130	118	2,187	0	100.6
1979	10,050	2,100	110	114	2,104	0	99.8
1980	15,792	3,285	189	64	3,160	0	104
1981	16,483	3,428	315	60	3,073	3.2	111.5
1982	17,100	3,586	398	20	3,258	1.5	110.1
1983	17,500	3,495	450	30	3,095	1	112.9
1984	18,100	3,677	508	21	3,210	0.3	114.5
1985	20,700	3,708	537	48	3,209	0.6	115.5
1986	21,400	3,840	389	528	3,999	0	96
1987	23,200	4,730	321	164	4,520	1.2	104.7
1988	23,500	4,787	579	24	4,270	0.3	112.1
1989	23,900	4,937	345	218	4,815	0.2	102.5
1990	24,200	5,008	249	255	5,014	0.2	99.9
1991	26,600	5,481	335	108	5,249	0.3	104.4
1992	28,000	5,725	442	114	5,392	0.4	106.2
1993	27,832	5,650	376	33	5,297	0.6	106.7
1994	28,088	5,730	312	104	5,502	0.9	104.1
1995	29,803	6,080	228	151	5,993	1	101.5
1996	31,144	6,150	224	181	6,147	0.3	100
1997	29,514	6,050	232	145	5,973	0.2	101.3
1998	29,805	6,140	306	102	5,941	0.1	103.3
1999	29,500	6,270	464	52	5,861	0	107
2000	30,467	6,520	492	69	6,090	0.1	107.1
2001	31,860	6,895	748	43	6,190	0.1	111.4
2002	32,240	7,050	800	30	6,280	0.1	112.3

표 10 국별 쇠고기 통계(베네수엘라)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773	137	0	1	137	0	100
1962	782	138	0	0	139	0	99.3
1963	826	147	0	0	147	0	100
1964	896	158	0	0	158	0	100
1965	915	162	0	0	163	0	99.4
1966	994	177	0	0	177	0	100
1967	1,024	184	0	0	184	0	100
1968	1,049	184	0	0	184	0	100
1969	1,161	208	0	0	208	0	100
1970	1,195	201	0	0	201	0	100
1971	1,272	214	0	0	214	0	100
1972	1,256	219	0	0	219	0	100
1973	1,320	230	0	0	230	0	100
1974	1,328	235	1	2	236	0	99.6
1975	1,396	267	0	31	298	0	89.6
1976	1,447	271	0	35	306	0	88.6
1977	1,427	274	0	40	314	0	87.3
1978	1,566	311	0	42	353	0	88.1
1979	1,714	296	0	47	343	0	86.3
1980	1,772	346	0	46	392	0	88.3
1981	1,713	344	0	61	405	0	84.9
1982	1,789	337	0	59	396	0	85.1
1983	1,713	340	0	18	358	0	95
1984	1,522	302	0	6	308	0	98
1985	1,596	324	0	1	325	0	99.7
1986	1,502	307	0	0	307	0	100
1987	1,292	276	0	21	276	7.6	100
1988	1,412	307	6	8	304	8.6	101
1989	1,543	337	1	3	350	4.3	96.3
1990	1,823	355	2	2	362	2.2	98.1
1991	1,602	380	0	17	393	3	96.7
1992	1,749	365	0	13	381	2.4	95.8
1993	1,778	377	0	14	393	1.8	95.9
1994	1,750	370	0	0	370	1.9	100
1995	1,650	347	0	1	349	1.7	99.4
1996	1,550	322	0	0	322	1.9	100
1997	1,700	354	0	1	353	2.3	100.3
1998	1,700	354	0	5	361	1.7	98.1
1999	1,700	352	0	2	352	2.3	100
2000	1,650	350	0	2	352	2.3	99.4
2001	1,710	355	0	4	358	2.5	99.2
2002	1,700	357	0	2	358	2.8	99.7

표 11 국별 쇠고기 통계(유럽15)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0,978	5,649	339	812	6,127	0.8	92.2
1962	32,431	5,930	418	1,026	6,548	0.7	90.6
1963	33,128	6,021	437	1,135	6,741	0.8	89.3
1964	30,151	5,721	346	1,155	6,503	1.2	88
1965	28,940	5,667	335	1,114	6,432	1.4	88.1
1966	30,803	6,151	401	1,194	6,973	0.9	88.2
1967	32,353	6,573	563	1,293	7,282	1.2	90.3
1968	32,426	6,736	605	1,318	7,444	1.2	90.5
1969	32,325	6,795	611	1,409	7,622	1.7	89.2
1970	33,157	7,159	651	1,356	7,863	1.7	91
1971	32,820	7,248	711	1,259	7,802	1.6	92.9
1972	29,130	6,691	674	1,619	7,639	1.6	87.6
1973	30,434	6,865	761	1,751	7,794	2.4	88.1
1974	35,504	8,042	1,057	1,181	7,959	5	101
1975	36,497	8,193	1,288	1,303	8,212	4.9	99.8
1976	34,897	8,056	1,194	1,501	8,248	6.3	97.7
1977	33,826	7,832	1,316	1,790	8,323	6.3	94.1
1978	33,604	7,844	1,342	1,760	8,366	5	93.8
1979	34,720	8,270	1,508	1,730	8,428	5.5	98.1
1980	35,364	8,556	1,844	1,664	8,388	5.4	102
1981	33,836	8,410	1,891	1,522	8,062	5.4	104.3
1982	33,334	8,072	1,682	1,579	7,924	6	101.9
1983	34,026	8,283	1,798	1,647	7,934	8.5	104.4
1984	36,099	8,830	2,088	1,617	8,030	12.5	110
1985	35,649	8,809	2,223	1,727	8,113	14.8	108.6
1986	35,863	8,944	2,668	1,783	8,280	11.9	108
1987	35,570	8,994	2,403	1,841	8,378	12.4	107.3
1988	33,029	8,520	2,387	1,921	8,085	12.4	105.4
1989	31,582	8,310	2,720	1,945	7,959	7.3	104.4
1990	33,243	8,787	2,631	1,910	7,732	11.8	113.6
1991	34,753	9,220	3,003	2,105	8,114	13.8	113.6
1992	32,801	8,843	2,969	2,206	7,908	16.4	111.8
1993	30,005	8,149	2,877	2,125	7,756	12.1	105.1
1994	28,706	7,857	2,882	2,168	7,559	6.9	103.9
1995	28,359	7,852	2,722	2,076	7,375	4.7	106.5
1996	28,019	7,808	2,365	1,797	6,879	10.3	113.5
1997	28,459	7,779	2,417	1,888	7,041	13	110.5
1998	27,467	7,512	2,237	1,849	7,238	11.1	103.8
1999	27,334	7,569	2,515	2,023	7,485	5.3	101.1
2000	27,209	7,462	645	448	7,300	5	102.2
2001	25,400	7,044	532	410	6,740	8.1	104.5
2002	26,300	7,230	638	467	7,056	7.8	102.5

표 12 국별 쇠고기 통계(폴란드)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4,239	328	30	5	304	0	107.9
1962	4,484	380	39	4	344	0	110.5
1963	4,677	429	28	18	418	0	102.6
1964	4,688	444	26	15	432	0	102.8
1965	4,395	411	31	4	384	0	107
1966	4,336	421	25	25	421	0	100
1967	4,593	488	34	10	464	0	105.2
1968	4,940	531	40	6	497	0	106.8
1969	5,349	566	47	4	522	0	108.4
1970	4,940	549	27	2	525	0	104.6
1971	4,697	520	32	7	495	0	105
1972	4,250	500	31	19	488	0	102.5
1973	4,326	575	48	17	544	0	105.7
1974	4,920	742	52	2	692	0	107.2
1975	5,010	823	65	1	759	0	108.4
1976	5,201	893	40	25	878	0	101.7
1977	4,378	818	33	77	862	0	94.9
1978	4,352	802	41	12	773	0	103.8
1979	4,588	842	45	5	802	8.5	105
1980	4,594	780	43	35	772	8.8	101
1981	3,813	600	12	89	677	10	88.6
1982	4,534	775	12	12	775	8.8	100
1983	4,312	738	14	7	760	5.1	97.1
1984	4,360	787	10	15	774	7.4	101.7
1985	4,280	826	13	4	790	10.6	104.6
1986	4,322	854	49	2	818	8.9	104.4
1987	4,047	835	53	0	805	6.2	103.7
1988	3,511	783	55	44	810	1.5	96.7
1989	3,355	729	48	90	768	1.9	94.9
1990	4,493	838	57	3	779	2.6	107.6
1991	4,265	770	10	33	793	2.5	97.1
1992	3,699	634	20	34	658	1.5	96.3
1993	3,640	462	16	28	474	2.1	97.5
1994	3,249	405	19	24	410	2.4	98.8
1995	2,687	400	23	11	390	2	102.6
1996	2,900	396	31	32	400	1.2	99
1997	2,950	404	46	10	368	1.4	109.8
1998	3,050	407	109	1	296	2.7	137.5
1999	2,800	367	35	0	324	4.9	113.3
2000	2,500	325	28	1	294	6.8	110.5
2001	2,300	305	38	0	262	9.5	116.4
2002	2,200	290	40	0	250	10	116

표 13 국별 쇠고기 통계(러시아)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0	0	0	0	0	0	0
1962	0	0	0	0	0	0	0
1963	0	0	0	0	0	0	0
1964	0	0	0	0	0	0	0
1965	0	0	0	0	0	0	0
1966	0	0	0	0	0	0	0
1967	0	0	0	0	0	0	0
1968	0	0	0	0	0	0	0
1969	0	0	0	0	0	0	0
1970	0	0	0	0	0	0	0
1971	0	0	0	0	0	0	0
1972	0	0	0	0	0	0	0
1973	0	0	0	0	0	0	0
1974	0	0	0	0	0	0	0
1975	0	0	0	0	0	0	0
1976	0	0	0	0	0	0	0
1977	0	0	0	0	0	0	0
1978	0	0	0	0	0	0	0
1979	0	0	0	0	0	0	0
1980	0	0	0	0	0	0	0
1981	0	0	0	0	0	0	0
1982	0	0	0	0	0	0	0
1983	0	0	0	0	0	0	0
1984	0	0	0	0	0	0	0
1985	0	0	0	0	0	0	0
1986	0	0	0	0	0	0	0
1987	0	0	0	0	0	0	0
1988	20,506	4,150	0	1,074	5,224	0	79.4
1989	20,711	4,256	0	1,079	5,335	0	79.8
1990	21,155	4,329	0	1,095	4,905	10.6	88.3
1991	20,776	3,989	4	1,035	5,060	9.5	78.8
1992	20,138	3,632	4	494	4,165	10.5	87.2
1993	19,678	3,300	2	407	3,863	7.2	85.4
1994	19,771	3,240	4	541	3,791	7	85.5
1995	17,292	2,734	5	612	3,402	6	80.4
1996	15,315	2,570	5	876	3,464	5.2	74.2
1997	13,500	2,326	7	1,062	3,486	2.1	66.7
1998	12,300	2,090	4	684	2,845	0	73.5
1999	10,860	1,900	4	838	2,734	0	69.5
2000	10,515	1,840	9	477	2,308	0	79.7
2001	10,050	1,770	8	675	2,437	0	72.6
2002	9,730	1,710	8	750	2,452	0	69.7

표 14 국별 쇠고기 통계(남아프리카공화국)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364	412	18	0	395	0	104.3
1962	2,420	419	20	0	400	0	104.8
1963	2,460	486	25	0	461	0	105.4
1964	2,616	464	30	0	435	0	106.7
1965	2,647	482	30	0	452	0	106.6
1966	2,688	480	46	12	446	4.5	107.6
1967	2,376	499	43	41	497	4	100.4
1968	2,277	480	25	47	502	4	95.6
1969	2,243	471	19	51	503	4	93.6
1970	2,343	492	27	55	520	3.9	94.6
1971	2,500	525	35	57	547	3.7	96
1972	2,750	577	59	55	573	3.5	100.7
1973	2,901	607	73	67	601	3.3	101
1974	2,512	527	41	78	564	3.5	93.4
1975	2,320	492	24	51	519	3.9	94.8
1976	2,563	537	30	36	543	3.7	98.9
1977	2,693	580	32	65	613	3.3	94.6
1978	2,986	629	41	28	616	3.2	102.1
1979	3,220	679	47	14	646	3.1	105.1
1980	3,382	733	26	35	742	2.7	98.8
1981	2,804	616	18	23	621	3.2	99.2
1982	2,910	625	14	18	629	3.2	99.4
1983	2,914	653	5	22	639	8	102.2
1984	2,958	669	2	22	677	9.3	98.8
1985	2,873	638	2	22	676	6.7	94.4
1986	2,805	616	3	25	675	1.2	91.3
1987	2,646	583	1	48	638	0	91.4
1988	2,396	553	1	68	614	1	90.1
1989	2,491	582	1	58	638	1.1	91.2
1990	2,934	661	1	33	690	1.4	95.8
1991	3,125	700	1	29	728	1.4	96.2
1992	3,251	745	1	22	752	3.2	99.1
1993	3,108	691	3	29	741	0	93.2
1994	2,577	581	2	83	662	0	87.8
1995	2,340	542	2	66	606	0	89.4
1996	2,330	525	2	60	583	0	90
1997	2,441	591	3	60	648	0	91.2
1998	2,535	539	7	36	568	0	94.9
1999	2,766	584	5	26	605	0	96.5
2000	2,835	630	4	45	671	0	93.9
2001	2,890	635	7	48	676	0	93.9
2002	2,750	600	7	55	648	0	92.6

표 15 국별 쇠고기 통계(호주)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4,762	730	275	0	446	5.4	163.7
1962	5,611	879	382	0	502	3.8	175.1
1963	6,075	957	426	0	526	4.6	181.9
1964	6,472	998	442	0	553	4.9	180.5
1965	6,562	964	450	0	522	3.6	184.7
1966	6,231	949	428	0	519	4	182.8
1967	5,595	896	374	0	520	4.4	172.3
1968	5,478	896	377	0	517	6	173.3
1969	5,821	979	450	0	523	7.1	187.2
1970	5,709	1,002	510	0	500	5.8	200.4
1971	5,995	1,104	574	0	524	6.7	210.7
1972	7,468	1,329	780	0	538	8.6	247
1973	8,443	1,514	920	0	587	9	257.9
1974	6,988	1,279	530	0	753	6.5	169.8
1975	9,596	1,703	777	0	926	5.3	183.9
1976	11,434	1,899	905	0	974	7.1	195
1977	12,792	2,158	1,138	0	997	9.2	216.4
1978	12,345	2,131	1,199	0	933	9.8	228.4
1979	9,839	1,770	1,096	0	711	7.6	248.9
1980	8,883	1,534	883	0	659	7	232.8
1981	8,090	1,421	711	0	712	6.2	199.6
1982	9,456	1,676	942	0	745	4.4	225
1983	8,103	1,412	767	0	650	4.3	217.2
1984	6,650	1,248	616	0	625	5.6	199.7
1985	7,146	1,338	690	0	639	6.9	209.4
1986	7,869	1,478	807	0	665	7.5	222.3
1987	8,049	1,549	908	0	639	8.1	242.4
1988	7,770	1,533	890	0	662	5	231.6
1989	7,486	1,565	872	0	700	3.7	223.6
1990	8,166	1,718	1,064	0	651	4.5	263.9
1991	8,271	1,735	1,080	0	654	4.6	265.3
1992	8,480	1,838	1,191	5	646	5.6	284.5
1993	8,357	1,806	1,169	5	634	6.9	284.9
1994	8,332	1,829	1,168	8	669	6.6	273.4
1995	7,917	1,717	1,108	8	639	3.4	268.7
1996	7,970	1,736	1,026	7	705	4.8	246.2
1997	9,161	1,942	1,184	6	755	5.7	257.2
1998	9,324	1,989	1,268	5	712	8	279.4
1999	8,759	1,956	1,270	5	722	3.6	270.9
2000	8,642	1,988	1,338	5	660	3.2	301.2
2001	8,739	2,034	1,395	5	645	3.1	315.4
2002	8,960	2,070	1,425	5	650	3.1	318.5

표 16 국별 쇠고기 통계(뉴질랜드)

연도	도축두수 (천두)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240	240	137	0	100	17	240
1962	2,637	286	174	0	110	17.3	260
1963	2,694	298	184	0	122	9	244.3
1964	2,678	292	177	0	109	14.7	267.9
1965	2,362	276	131	0	142	12.7	194.4
1966	2,274	292	140	0	152	11.8	192.1
1967	2,429	302	141	0	162	9.9	186.4
1968	2,730	345	171	0	175	9.1	197.1
1969	3,033	376	208	0	157	17.2	239.5
1970	3,130	393	272	0	113	31	347.8
1971	2,888	393	301	0	109	16.5	360.6
1972	2,828	410	275	0	129	18.6	317.8
1973	3,091	446	311	0	145	9.7	307.6
1974	3,034	405	258	0	145	11	279.3
1975	3,578	508	305	0	164	33.5	309.8
1976	3,868	628	383	0	175	71.4	358.9
1977	3,570	558	384	0	210	42.4	265.7
1978	3,533	562	346	0	205	48.8	274.1
1979	3,207	512	343	0	200	34.5	256
1980	2,980	496	346	0	169	29.6	293.5
1981	3,053	498	347	0	156	28.9	319.2
1982	3,241	521	366	0	167	19.8	312
1983	3,119	536	372	0	172	14.5	311.6
1984	2,597	433	287	0	141	21.3	307.1
1985	2,837	486	332	0	150	22.7	324
1986	2,533	466	340	0	129	24	361.2
1987	3,328	563	432	0	128	26.6	439.8
1988	3,042	562	435	0	126	27.8	446
1989	3,178	550	435	0	125	20	440
1990	2,780	471	359	0	110	24.6	428.2
1991	2,870	524	428	1	97	27.8	540.2
1992	2,816	518	426	1	96	25	539.6
1993	3,060	575	448	6	101	55.5	569.3
1994	2,945	566	466	6	101	60.4	560.4
1995	3,104	630	497	7	112	79.5	562.5
1996	3,858	631	501	7	146	54.8	432.2
1997	3,803	664	509	6	166	45.2	400
1998	3,704	620	488	7	147	45.6	421.8
1999	3,485	558	442	7	137	38.7	407.3
2000	3,520	580	485	12	133	20.3	436.1
2001	3,833	600	495	12	127	13.4	472.4
2002	4,215	635	530	13	127	6.3	500

자료: <http://www.worldfood.muses.tottori-u.ac.jp>에서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M45-30 세계농업뉴스 제30호 (2003. 2)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년 2월

발 행 2003년 2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